

굳건한 ‘巨野장벽’... 성난 민심이 쌓았다

㉠ 선택 22대 총선

민주·민주연합 200석 안팎 예측
입법 독주·전방위 압박 재현 전망

정부, 3대 개혁 등 국정동력 상실
與, 새 지도부 선출·쇄신 불가피

22대 총선의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승리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남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 국면에서 완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투표마감 직후인 10일 오후 6시발표된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은 178~196석으로 예측됐다. MBC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 SBS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100석, 민주당·민주연합 183~197석으로 각각 나타났다.

양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녹색정의당 0석 등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 과반에 이어 범야권 200석까지 노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지지선(100석) 붕괴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는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은 87곳, 국민의힘은 6곳에서 우세했고 29곳에서 경합이 예상됐다. 특히 한강벨트 핵심인 서울 동작을(민주당 류삼영 52.3%·국민의힘 나경원 47.7%), 여야 잠룡이 격돌한 경기 성남 분당갑(민주당 이광재 52.8%·국민의힘 안철수 47.2%)도 각각 우위를 점했다.

우선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다수 법안을 단독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총선 개표상황실에서 윤재옥(왼쪽 사진 앞줄 왼쪽부터) 공동선대위원장,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김부겸(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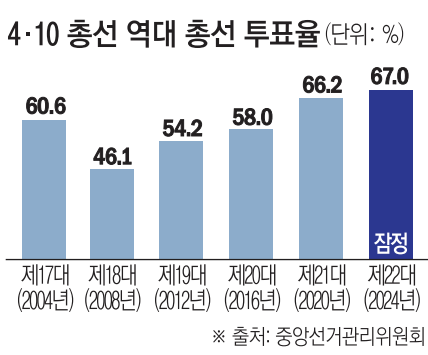
잠정 투표율 67%... 32년 만에 최고 기록

4년 전 총선보다 0.8%p 높아져
세종 70.2% 최고·제주 62.2% 최저

4·10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0%로 잠정 집계됐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0.8%포인트(p) 높았으며, 1992년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마의 70%' 벽을 넘지는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67.0%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 고 밝혔다.

여기에는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31.28%)과 거소·선상·재외투표의 투표율이 포함됐다. 이번 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66.2%)과 비교해 0.8%p 높고, 2016년 20대 총선의 투표율 58.0%보다 9.0%p 높다.



특히, 1992년 치러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율(77.1%)보다는 10.1%p 낮고,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50.9%)보다는 16.1%p 높았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가 모두 62%를 넘었고, 세종이 70.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69.3%), 전남(69.0%), 광주(68.2%), 경남(67.6%), 부산(67.5%), 전북

(67.4%) 등에서 최종 투표율(67.0%)을 웃돌았다. 울산(66.9%), 경기(66.7%), 강원(66.6%), 대전(66.3%), 인천(65.3%), 충북(65.2%), 경북(65.1%), 충남(65.0%), 대구(64.0%) 등은 최종 투표율보다 낮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62.2%였다.

선관위는 지역구 투표는 11일 오전 4시께, 비례대표 투표는 11일 오전 6시께 실제 개표가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총선부터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최종 개표 마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예년 총선과 비교해 약 2시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4·10 총선 지면 안내	
투표율 분석	▶2면
달리진 정치구도	▶3면
22대 국회에 바란다	▶4·5면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과 비교해 경제 규모 대비 가장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닛케이아시아(닛케이)는 10일 일본 재정시스템협의회 소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규모가 최근 3년간 3조9000억 엔(약 3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71%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6면

‘21세기 전략물자’로 떠오른 반도체를 놓고 각국이 지원을 겨루고 있는 와

美·佛·獨 능가한 파격 보조금... 반도체 패권 노리는 日

〈경제규모 대비〉

중에 일본의 적극성이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은 5년간 7조1000억 엔에 달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1%로 일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는 5년간 7000억 엔(GDP의 0.2%)을, 독일은 2조5000억 엔(GDP 0.41%)을 지출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대만 TSMC의 일본공장 건설 등

3년간 GDP의 0.71% 규모 투입
구체적 자금조달·계획 부족 우려도

에 1조200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50년 이상 묶였던 그린벨트까지 풀었다. 자국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는 총 9200억 엔을 제공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다만 닛케이에는 반도체 파격 지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재원과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본 반도체 보조금 중 재원 뒷받침이 있는 것은 5000억 엔 정도에 그친다. 미국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가령 미국의 ‘인플레이

션감축법(IRA)’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10년 동안 437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대기업 세수 증가를 그 재원으로 지정했다.

닛케이에는 서방국가들은 반도체 산업 보조금 규모와 지원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해 기업의 투자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아직 재원 마련은 물론 지원 시기 등 구체적인 중장기 투자 전략과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진영 기자 mint@

투표장으로 달려간 ‘심판자’ 들… 마의 70% 벽은 못 넘어

이번 4·10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0%로 70%에 육박한 것은 여야가 각각 앞세웠던 ‘거야(巨野)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바탕으로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도 ‘마의 70%’ 벽을 넘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함에 따라 1992년 치러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7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총선 투표율은 1992년 71.9%(14대)를 기록한 이후로 70%를 넘어선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에서 46.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투표율은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도 70%를 넘지는 못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투표율이 기대치보다 낮았던 데에는 정치권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본 투표에 참여하던 유권자가

‘巨野 심판론’ vs ‘정권 심판론’ 여야 지지층 모두 “한 표라도 더”

사전투표 영향 본투표율 떨어져 ‘野 강세’ 호남 투표율 평균 이상 “이미 졌다” TK는 평균 못 미쳐

사전투표에 참여한 ‘분산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7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은 여야가 각각 앞세웠던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양측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앞세운 ‘거야심판론’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야권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더욱 불러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통적인 야권 강세 지역인 호남 지역의 투표율은 전남(69.0%)과 광주(68.2%), 전북(67.4%)이 모두 평균(67.0%) 이상을 기록했지만,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 투표율은

경북이 65.1%, 대구가 64.0%로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대구(67.0%)와 경북(66.4%)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광주의 투표율은 65.9%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대구는 직전 총선 투표율과 비교하면 3.0%포인트(p) 떨어졌고, 경북의 투표율도 1.3%p 하락했다.

호남을 비롯한 야권 우세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세운 정권 심판론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TK 지역을 포함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범야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낮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비례대표 의석 수 산정과 배분을 하고, 11일 오후 5시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투표율은 전국 개표가 완료되는 11일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단 한 장의 오개표도 없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KBS MBC SBS 방송3사 출구조사

서울특별시			
종로	● 광성언 56.1%	● 최재형 39.6%	
중·성동갑	● 전현희 55.6%	● 윤희숙 44.5%	
중·성동을	● 박성준 52.8%	● 이혜훈 47.2%	
용산	● 강태웅 50.3%	● 권영세 49.3%	
광진갑	● 이정현 54.1%	● 김병민 45.9%	
광진을	● 고민정 51.6%	● 오신환 48.1%	
동대문갑	● 안규백 54.3%	● 김영우 43.3%	
동대문을	● 장경태 57.4%	● 김경진 42.6%	
종로갑	● 서영교 64.6%	● 김심화 35.4%	
종랑을	● 박홍근 60.1%	● 이승환 39.9%	
성북갑	● 김영배 58.7%	● 이종철 36.8%	
성북을	● 김남근 57.9%	● 이상규 42.2%	
강북갑	● 천준호 60.9%	● 전상범 39.1%	
강북을	● 한민수 56.8%	● 박진웅 38.5%	
도봉갑	● 안규령 52.4%	● 김재섭 45.5%	
도봉을	● 오기형 55.5%	● 김선동 44.5%	
노원갑	● 우원식 60.3%	● 현경병 39.7%	
노원을	● 김성환 63.0%	● 이준철 35.7%	
은평갑	● 박주민 57.9%	● 홍인정 42.1%	
은평을	● 김우영 53.2%	● 장성호 42.8%	
서대문갑	● 김동아 56.3%	● 이우호 38.5%	
서대문을	● 김영호 53.8%	● 박진 46.3%	
마포갑	● 이지은 52.9%	● 조종훈 43.5%	
마포을	● 정청래 50.6%	● 함은경 41.6%	
양천갑	● 황희 56.7%	● 구지룡 42.1%	
양천을	● 이용선 53.9%	● 오경훈 46.1%	
강서갑	● 강성우 55.9%	● 구상찬 41.2%	
강서를	● 진성준 50.5%	● 박민식 49.5%	
강서병	● 한재호 52.3%	● 김일호 47.7%	
구로갑	● 이인영 60.5%	● 호준석 39.5%	
구로를	● 윤건영 63.1%	● 태영호 36.9%	
금천	● 최기상 61.0%	● 강성만 39.0%	
영등포갑	● 채현일 57.6%	● 김영주 39.7%	
영등포을	● 김민석 53.1%	● 박용찬 46.1%	
동작갑	● 김병기 47.8%	● 장진영 47.4%	
동작을	● 류상영 52.3%	● 나경원 47.7%	
관악갑	● 박민규 59.9%	● 유승필 40.1%	
관악을	● 정태호 62.2%	● 이상심 35.4%	
서초갑	● 김하나 35.2%	● 조은희 64.8%	
서초을	● 홍익표 45.2%	● 신동욱 54.8%	
강남갑	● 김태형 38.5%	● 서명욱 61.5%	
강남을	● 강창희 38.3%	● 박수민 61.7%	
강남병	● 박경미 31.9%	● 고동진 67.3%	
송파갑	● 조재희 47.2%	● 박정훈 50.0%	
송파을	● 송기호 46.9%	● 배현진 53.1%	
송파병	● 남인순 53.4%	● 김근식 46.6%	
강동갑	● 진선미 53.0%	● 전주혜 45.6%	
강동을	● 이혜식 56.6%	● 이재영 42.3%	

부산광역시			
중·영도구	● 박영미 45.8%	● 조승환 53.2%	
사·동구	● 최형욱 44.4%	● 박규택 55.6%	
부산진갑	● 서은숙 52.1%	● 정성국 47.9%	
부산진을	● 이현 45.2%	● 이현승 52.5%	
동래	● 박성현 43.3%	● 서지영 54.6%	
남구	● 박재호 51.3%	● 박수필 48.7%	
북구갑	● 전재수 54.2%	● 서병수 44.7%	
북구를	● 정명희 52.1%	● 박성훈 47.9%	

해운대갑	● 홍순현 45.5%	● 주진우 52.8%	
해운대을	● 윤준호 46.0%	● 김미애 54.0%	
사하갑	● 최인호 52.1%	● 이성권 47.9%	
사하을	● 이재성 41.0%	● 조경태 56.5%	
금정	● 박인영 42.3%	● 백종현 57.7%	
강서	● 변성완 46.5%	● 김도읍 53.5%	
연제	● 김희정 51.2%	● 노정현 48.8%	
수영	● 유동철 35.2%	● 정연욱 53.1%	
사상	● 배재정 49.7%	● 김대식 50.3%	
기장	● 최재용 49.6%	● 정동만 50.4%	

대구광역시			
중·남구	● 허소 30.3%	● 김기용 57.2%	
동·군위갑	● 신호철 25.4%	● 최은석 74.6%	
동·군위를	● 김대식 68.5%	● 황순규 26.3%	
서구	● 김성훈 65.3%	● 서중현 34.7%	
북구갑	● 박정희 32.9%	● 우재준 66.0%	
북구를	● 신동환 29.3%	● 김승수 65.9%	
수성갑	● 강민구 33.1%	● 주호영 62.8%	
수성을	● 이인선 71.2%	● 오준호 16.8%	
달서갑	● 권택홍 29.1%	● 유영하 70.9%	
달서을	● 김성태 25.6%	● 윤재욱 74.4%	
달서병	● 권영진 70.0%	● 조원진 17.1%	
달서을	● 박형룡 27.3%	● 추경호 72.7%	

인천광역시			
중·강화·옹진	● 조택상 48.7%	● 배준영 50.7%	
동·미추홀갑	● 하종식 55.1%	● 심재돈 44.9%	
동·미추홀을	● 남영희 53.2%	● 윤상현 46.9%	
연수갑	● 박진대 56.2%	● 정승연 42.6%	
연수를	● 정일영 52.0%	● 김기홍 48.0%	
남동갑	● 맹성규 56.2%	● 손병규 41.6%	
남동을	● 이훈기 54.1%	● 신재경 45.9%	
부평갑	● 노종면 58.3%	● 유재홍 41.7%	
부평을	● 박신원 53.6%	● 이현웅 38.1%	
계양갑	● 유동수 53.7%	● 최원식 46.3%	
계양을	● 이재명 56.1%	● 원희룡 43.8%	
서구갑	● 김교홍 55.9%	● 박상수 42.0%	
서구를	● 오용우 55.0%	● 박종진 45.0%	
서구병	● 모경중 56.6%	● 이행수 41.2%	

광주광역시			
동·남구갑	● 정진욱 90.0%	● 강현구 10.0%	
동·남구를	● 안도걸 74.4%	● 김성환 12.8%	
서구갑	● 조인철 64.2%	● 송영길 22.1%	
서구를	● 양부남 70.9%	● 강은미 14.3%	
북구갑	● 정준호 79.3%	● 김정명 14.6%	
북구를	● 전진숙 67.5%	● 윤민호 20.3%	
광산갑	● 박근택 79.7%	● 정희성 9.9%	
광산을	● 민형배 72.5%	● 이낙연 17.4%	

대전광역시			
동구	● 장철민 53.1%	● 윤창현 45.2%	
중구	● 박용갑 53.1%	● 이은권 46.9%	
서구갑	● 장종태 55.0%	● 조수연 40.3%	
서구를	● 박범계 55.6%	● 양홍규 42.9%	
유성갑	● 조승래 53.9%	● 윤소식 43.6%	
유성을	● 황정아 57.9%	● 이상민 39.5%	
대덕	● 박정현 53.0%	● 박경호 40.2%	

울산광역시			
중구	● 오상택 42.0%	● 박성민 58.0%	
남구갑	● 전은수 41.1%	● 김삼욱 55.9%	
남구를	● 박성진 43.9%	● 김기현 56.1%	
동구	● 김대선 44.5%	● 권명호 46.2%	
북구	● 박대동 38.7%	● 윤종오 59.6%	
울주	● 이선호 48.3%	● 서병수 51.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갑	● 류체화 39.5%	● 김종민 60.5%	
세종을	● 강준현 53.2%	● 이준배 39.8%	

경기도			
수원갑	● 김승원 58.2%	● 김현준 40.1%	
수원을	● 백혜련 62.8%	● 홍윤오 37.2%	
수원병	● 김영진 57.2%	● 방문규 42.8%	
수원정	● 김준혁 54.7%	● 이수정 45.3%	
수원무	● 염태영 59.8%	● 박재순 40.2%	
성남 수정	● 김태년 60.9%	● 장영진 39.1%	
성남 중원	● 이수진 58.7%	● 윤용근 41.3%	
성남 분당갑	● 이광재 52.8%	● 안철수 47.2%	
성남 분당을	● 김병국 51.7%	● 김은혜 48.3%	
의정부갑	● 박지혜 55.8%	● 전희경 43.2%	
의정부을	● 이재강 59.0%	● 이형식 41.0%	
안양 만안	● 강득구 53.7%	● 최도희 46.3%	
안양 동안갑	● 민병덕 58.3%	● 이재훈 41.7%	
안양 동안을	● 이재정 59.9%	● 심재철 40.1%	
부천갑	● 서영석 58.9%	● 김복덕 41.1%	
부천을	● 김기표 55.7%	● 박성중 38.3%	
부천병	● 이근태 58.5%	● 하종대 33.8%	
광명갑	● 임오경 61.6%	● 김기남 38.4%	
광명을	● 김남희 61.8%	● 전동석 38.2%	
평택갑	● 홍기원 56.6%	● 한무경 43.4%	
평택을	● 이병진 50.8%	● 정우성 49.2%	
평택병	● 김현정 57.3%	● 유의동 39.1%	
동두천·양주·연천	● 정성호 62.1%	● 안기영 37.9%	
동두천·양주·연천을	● 남병근 45.7%	● 김성원 54.3%	
안산갑	● 양문석 52.8%	● 이상철 47.2%	
안산을	● 김기현 56.0%	● 서정현 37.6%	
안산병	● 박해철 55.4%	● 김명연 42.0%	
고양갑	● 김성희 47.8%	● 한창섭 35.1%	
고양을	● 한준호 63.1%	● 장석환 35.9%	
고양병	● 이기현 59.5%	● 김충혁 40.5%	
고양정	● 김영환 58.0%	● 김용태 42.0%	
의왕·과천	● 이소영 57.2%	● 최기식 42.8%	
구리	● 윤호중 52.0%	● 나태근 45.3%	
남양주갑	● 최민희 53.6%	● 유낙준 33.3%	
남양주를	● 김병주 60.1%	● 박관용 37.6%	
남양주병	● 김용민 56.8%	● 조광환 40.7%	
오산	● 차지호 55.4%	● 김호은 44.6%	
시흥갑	● 문정복 61.4%	● 장필재 37.4%	
시흥을	● 조장식 59.0%	● 김윤식 37.8%	
군포	● 이학영 60.1%	● 최진학 39.9%	
하남갑	● 최미애 55.7%	● 이웅 44.3%	
하남을	● 김용만 55.1%	● 이창근 41.0%	
용인갑	● 이상식 54.4%	● 이원모 40.1%	
용인을	● 손명수 57.5%	● 이상철 40.0%	
용인병	● 부승찬 55.0%	● 고석 45.0%	
용인정	● 이인주 53.2%	● 강철호 45.5%	

파주갑	● 윤후덕 65.1%	● 박용호 34.9%	
파주를	● 박정 58.0%	● 한길룡 42.0%	
이천	● 엄태준 50.4%	● 송석준 49.6%	
안성	● 윤종근 53.3%	● 김학용 44.4%	
김포갑	● 김주영 51.9%	● 박진호 48.1%	
김포을	● 박상혁 54.1%	● 홍철호 45.9%	
화성갑	● 송옥주 56.0%	● 홍형선 44.0%	
화성을	● 공영운 43.7%	● 이준석 40.5%	
화성병	● 권철승 57.3%	● 최영근 40.9%	
화성정	● 전용기 56.4%	● 유경준 34.2%	
광주갑	● 소병훈 56.1%	● 함경우 43.9%	
광주를	● 안태준 52.1%	● 황명주 47.9%	
포천·기평	● 박윤국 52.3%	● 김용태 46.5%	
여주·양평	● 최재관 36.8%	● 김선교 63.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횡성·영월·강릉	● 허영 54.7%	● 김혜란 43.7%	
원주·횡성·영월·강릉을	● 전성 41.4%	● 한기호 54.0%	
원주갑	● 원창목 53.0%	● 박정하 47.0%	
원주를	● 송기현 55.8%	● 김완섭 44.2%	
강릉	● 김준남 44.7%	● 권성동 53.2%	
동해·태백·속초·정선	● 한호연 40.2%	● 이철규 56.5%	
속초·인제·고성·양양	● 김도근 46.9%	● 이양수 53.1%	
화천·횡성·영월·평창	● 허필홍 45.5%	● 유상범 54.5%	

충청북도			
청주 상당	● 이강일 54.8%	● 서승우 42.8%	
청주 서원	● 이광희 55.6%	● 김진모 44.4%	
청주 흥덕	● 이연희 53.7%	● 김동원 42.6%	
청주 청원	● 송재봉 56.2%	● 김수민 43.8%	
충주	● 김경욱 49.6%	● 이종배 50.4%	
제천·단양	● 이경용 44.1%	● 엄태영 48.4%	
보은·옥천·영동·괴산	● 이재한 49.8%	● 박덕홍 50.2%	
증평·진천·음성	● 임호선 53.3%	● 경대수 46.7%	

충청남도			
천안갑	● 문진식 53.1%	● 신범철 45.0%	
천안을	● 이재관 56.2%	● 이정만 40.8%	
천안병	● 이정문 53.4%	● 이창수 43.5%	
공주·부여·청양	● 박수현 52.0%	● 정진석 47.2%	
보령·서천	● 나소열 48.1%	● 장동혁 51.1%	
아산갑	● 복기왕 55.5%	● 김영석 43.0%	
아산을	● 강훈식 59.7%	● 전만권 40.3%	
서산·태안	● 조한기 49.9%	● 성일중 50.1%	
논산·계룡·금산	● 황명선 52.2%	● 박성규 46.8%	
당진	● 어기규 54.9%	● 정용선 45.1%	
홍성·예산	● 양승조 44.6%	● 강승규 55.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갑	● 김윤덕 78.1%	● 양정무 11.8%	
전주를	● 이상윤 63.1%	● 정운천 21.6%	
전주병	● 정동영 79.1%	● 전희재 13.4%	
군산·김제·부안	● 신영대 81.2%	● 오지성 18.8%	
군산·김제·부안을	● 이원택 78.4%	● 최홍우 13.5%	
익산갑	● 이춘석 73.6%	● 김민서 10.9%	
익산을	● 한병도 83.3%	● 문용희 15.3%	
정읍·고창	● 윤준병 85.5%	● 최용운 11.3%	
남원·장수·임실·완주	● 박희순 82.4%	● 강병무 13.8%	
완주·진안·무주	● 안호영 77.6%	● 이인숙 22.4%	

전라남도				
목표	● 김원이	75.0%	● 이윤석	12.0%
여수갑	● 주철현	88.1%	● 박정숙	12.0%
여수를	● 조계원	69.6%	● 권오봉	20.9%
순창·광안·곡성·구례	● 김문수	57.8%	● 이상수	23.6%
순창·광안·곡성·구례을	● 권항현	67.2%	● 이정현	24.1%
나주·화순	● 신정훈	70.5%	● 안주용	20.2%
담양·함평·영광·정성	● 이개호	61.1%	● 이석형	32.4%
고흥·보성·장흥·강진	● 문국주	88.7%	● 김형중	11.3%
해남·완도·진도	● 박지원	88.4%	● 광봉군	11.6%
영암·무안·신안	● 서삼석	76.0%	● 백재욱	13.4%

〈19대〉〈20대〉〈21대〉〈22대〉

158석→129→107→이번엔?... ‘영남당’ 쪼그라든 범보수

달라진 대한민국 정치구도

4·10 총선 결과는 달라진 정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보수 세력의 위기로 요약된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참패’에 이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부산, 강원까지 상당 부분 범야권에 위협받으며 ‘영남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22대 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구·경북(TK) 지역만 지켜내는 데 그쳤다. 기존에 보수세가 남아 있던 지역들은 대부분 흔들렸다. 우선 ‘180석 거대 야당’이라는 돌풍이 불었던 21대 국회에서도 18곳의 지역구 중 단 3석만을 내주면서 보수세를 유지하던 부산이 달라졌다. TK 지역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위인 강원 지역도 일정 부분 침범당하며 ‘보수정당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보수의 위기는 사실 이미 예견된 결과라

국민의힘 ‘수도권 참패’ 이어 보수색 짙었던 부산·강원 내줘 21대보다 못한 ‘역대 최악 성적표’ 돌풍 일으킨 ‘조국혁신당’ 급부상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보수 세력이 200석 넘는 의석을 휩쓸었던 2008년 제18대 총선 이후 보수진영의 의석수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두 자릿수 넘게 사라졌다.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보수성향 무소속 16석 등 범보수 세력은 201석을 얻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도 범보수진영은 새누리당 152석, 자유선진당 5석, 보수성향 무소속 1석 등을 더해 과반수가 넘는 158석을 차지하며 위용을 과시했다. 하지만 환호는 여기까지였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주저앉았다. 보수성향 무소속 7석을 더해 129석에 불과했다. 여소야대와 진보약진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린

선거였다. 2020년 제21대 총선은 보수의 몰락을 확인한 선거였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 보수성향 무소속 4석 등 범보수 세력이 얻은 의석수는 107석에 불과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핑계는 말 그대로 핑계였을 뿐이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진보 진영이 호남을 벗어나 서울과 수도권을 휩쓸고 영남까지 발을 뻗은 반면, 보수의 호남 명맥은 사실상 끊겼다. 당 공관위가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호남은 반복된 보수의 위기에도 정운천(전북 전주)을, 이정현(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등의 약진이 있었던 지역이다. 윤 대통령도 대선에서 광주 12.7%, 전북 14.4%, 전남 11.4%를 얻어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 중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에 휘둘러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던 21대 국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위기다. 특히 강성 팬덤으로 뭉친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하면서 진보세는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조국

대표는 총선 전날인 9일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4년 위헌정당 판정을 받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도 약진했다.

임기초 여소야대지형으로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은 윤석열 정부는 더욱 알뜰해 진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이 마비되거나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 되풀이되면서 현 정부는 이론 것 없이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보수 계열의 군소 정당인 개혁신당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비록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친 개혁신당이지만,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안 격이 될 수 있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며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난희 기자 nanch0907@



투표장이 된 야구훈련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중구 청구동 제1투표소(청구초 야구부실내훈련장)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드론 투표 4·10 총선 투표일인 10일 밤 국회 뒤로 한 방송국이 진행한 드론쇼가 보인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임기시작 내달 30일... 개시일은 미지수

21대 4월 임시국회 협상 못해 총선정국 마무리되면 논의할 듯

22대 원내대표단 4월말~5월초 구성 원구성 합의 등 일정 변경 가능성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협상’ 등의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지도부는 총선정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본지에 “총선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 예우법)’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임시회 처리 대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원내대표단이 새롭게 선출된다. 새로 뽑힌 여야 원내대표단이 22대 국회를 위한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개원 전제 조건’ 등 원 구성 합의에 나서게 된다.

22대 국회 개원 일정은 본투표 다음 날인 11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홈페이지에서 안내된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개원 일정을 구체화하더라도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일정을 조율하는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

22대 국회 첫 임시국회 일정도 아직은 미지수다.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20대 국회까지는 원 구성 협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길어져 해당 규정이 지켜진 적이 없다.

21대 국회 첫 임시회는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의 의지로 2020년 6월 5일 첫 본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장석 배분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퇴장했다.

다만 당선자들은 11일부터 약 한 달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당선자들은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에서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이른바 ‘금(金)배지’로 불리는 의원 배지를 수령할 수 있다. 개원종합지원실은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 등록과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정영민 기자 oin@

또 여소야대... 국정기조 바뀔까 尹, 남은 임기 3년 ‘협치’ 불가피

‘彊 vs 彊’ 극한 대치 재현 불보듯 민생토론회 약속 과제만 240개 속도 내려면 야당과 대화해야



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쟁거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은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한 선거로, 결과는 ‘정부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다. 방송 3사 출구 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취임 2년의 성적표는 ‘F(낙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만 보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했던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2대 국회가 21대보다 더한 여소야대 국면이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현안마다 타협했다.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5차례, 법안 개수로는 9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대강’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국회와 정면충돌을 이어가다 끝

정 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지형상 야당과 ‘대치대신 협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과제만 240개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을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만큼, 국정 기조 변화도 예측해볼 수 있다.

당정 관계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 책임론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정국에서 윤 대통령 행보가 여당에 악재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를 지역구에 출마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했다. 당시 조 의원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로 국정 쇄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경제계 “규제 사슬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주요 경제단체 설문조사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경쟁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뺏기면 안 된다는 호소다.

10일 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최근 자체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2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달라진 경제 주체들에 맞게, 개발성장 시대에 정해 놓은 낡은 기업 환경부터 확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 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중치법 큰 부담… 재입법 검토 52시간제·최저임금 개선해야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입법 수출 기업 정책금융 늘렸으면 잘못된 노사 제도 바로잡아야 정쟁으로 골든타임 허비 안돼”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 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확대’도 기업들이 바라는 점으로 꼽혔다. 무협이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조사 결과 수출 기업이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금융 확대(3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입법방향으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 조건 완화(30.7%)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다

음으로는 ‘위기 상황 시 원금·이자 상환 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금리 부담 완화’(17.2%) 등이 꼽혔다.

리스크가 있는 신기술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도체 수출기업 관계자는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AI 반도체와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투자를 계획 중인데, 금융기관에서는 최근의 재무제표만을 토대로 대출·보증 한도를 결정하다 보니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받기 어렵다”며 “당장의 매출·영업이익이 적더라도 기술력이나 잠재성을 토대로 평가하는 정책금융 제도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발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에선 줄곧 갈등이 이어져 온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직역단체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개선해 노동 유연성을 확

보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진입규제 혁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규제에 대한 감시와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개편 방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만 2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입법·정책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며 “22대 국회는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 속도에 맞는 제도개선 및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국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김동호 기자 sorahosi@



경제단체가 꼽은 22대 국회 선결 과제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 정책금융 확대
- 유연근로제 등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산업계 “신성장 사업 생태계 조성·R&D 세액공제 확대를”

산업계는 22대 국회를 향해 신성장 사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에서 기업들은 ‘R&D 지원’(26.1%)을 ‘정책금융’(36.6%)에 이어 국회가 시급히 다뤄야 하는 분야로 꼽았다. R&D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응답자의 43%로 가장 높았다.

연구 전담 요원 활용 범위를 넓히고, 스마트공장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철강 수출기업 관계자는 “스마트팩토리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지원 금액 중 일정 비중 이상을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 비용으로만 집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계설비 등 하드웨어 구입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을

“중견기업 세액공제 7.8% 불과 中企 5000억→중견 2兆까지 세액공제를 5%p씩 상향 검토 연구직, he업무 겸직 허용 필요”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기계 수출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은 연구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상 이들이 연구 외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잦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연구 전담 요원의 업무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연구소 보유 기업 1650개를 대상으로 차기 국회에 바라는 정책건의 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연구인력 확보와 R&D 세액공제 등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혁신기

술 확보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우수 R&D 인력 수급이 중요하다”며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기구와 같은 산업계 소통창구 마련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역할도 한층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R&D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의 7.8%에 불과하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최초 15%에서 6년차 이후에는 8%까지 축소된다. 중견련이 올해 1~2월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와 함께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등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에선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 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물 사용이 많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건의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물이용부담금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감면 등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인가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용수를 공급받을 때 원수 비용(인공처리되기 전 물비용)에 더해 부담금을 납부한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원수공급 비용 대비 7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나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김동호 기자 soraho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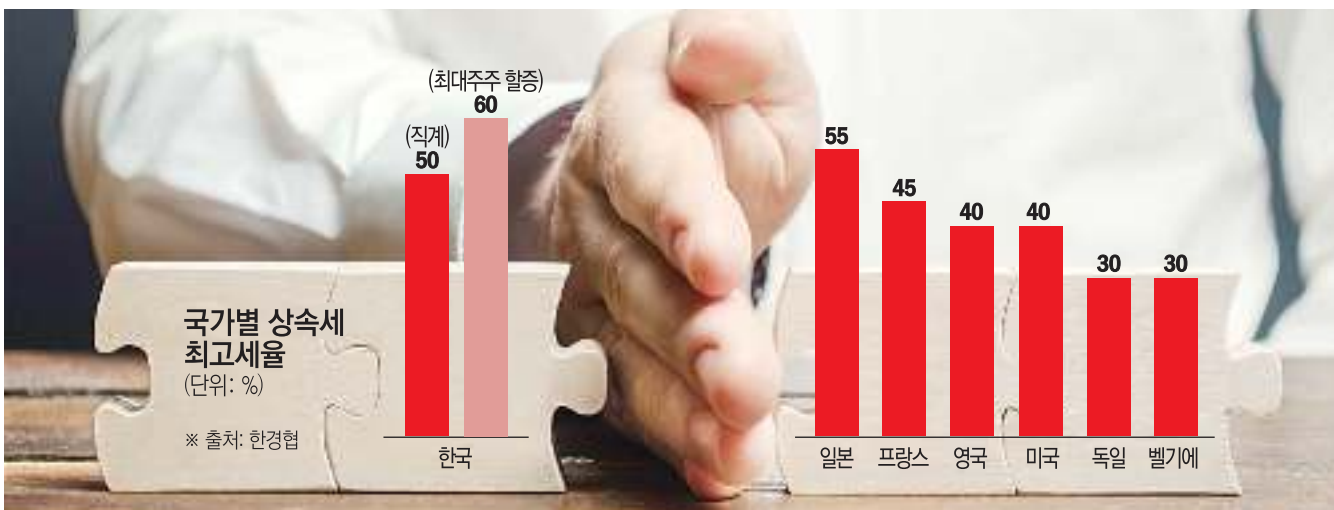
기업들 “상속세 개편 반드시 필요… 이번엔 숙원 풀어달라”

22대 국회에 바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와 승계 부담 등으로 기업들의 숙원이던 상속세 개편이 22대 국회에도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7월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개편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줄곧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에 부과되는 60% 수준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을 급감으로 이어져



국내 주가 저평가 원인 중 하나 넥슨, 상속 이후 정부가 2대주주 서정진, 셀트리온 국영화 거론 中企도 “상속세 개편” 이구동성 기업가정신 계승에 초점 맞춰야

경영권 위기를 초래한다”며 “상속세 완화 방향으로 가면 기업 존속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투자나 고용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국영기업이 되거나 주주가 바뀌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망 이후 유족들은 상속세로 NXC 지분을 정부에 납부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NXC 2대 주주가 됐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해 상속·증여세 문제 때문에 셀트리온이 국영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기도 했다.

재계 주요 그룹도 상속세로 속앓이하고 있다. 2020년 이견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는 2021년부터 상속세를 5년간 분할 납부 중이다. 이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

최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가족 역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 명예회장의 재산 규모는 최소 7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율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를 적용하면 상속세만 4000억 원이 넘는다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등도 상속세 마

련을 위해 지분 매각 또는 주식담보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 30억원도 2000년 이후 23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9배나 늘었다.

중소·중견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속·증여제도를 최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 증여세 부담 완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견련이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제22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14.5%를 차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탈피해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김동호 기자 sorahosi@

금융권 “금투세·금산분리 폐지 등 규제완화 나서야”

금융권 종사자들은 22대 국회에 금융권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고액 연봉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금융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자 이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이자 이익 증대를 위해 ‘금산분리 폐지’ 등 은행권 부수입무완화에 대해 다양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이어

금융업계 “기업 밸류업 법안 제정”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규제 변화, 해외 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에서도 금융권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보다 열린 시각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

축은행업권이 서민들의 최후보로 역할을 하는 만큼 서민금융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0월 시범 운영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밸류업 등 코

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바라는 목소리도 컸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선 세제 지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증권사 IB총괄 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주주환원 강화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배당은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세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C증권사 투자운용팀의 팀장은 “금융소득 전체를 계산할 때 배당소득을 분리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주환원책과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권태성 기자 tskwon@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고 제2024-1호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복지를 확대하고자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8.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가스사용을 지원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시행주체) : 2023. 4 ~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업대상 및 예산
 - 사업대상 : LPG호스사용 37,400가구
 - 사업예산 : 10,466백만원 (정부: 4,388, 지자체: 4,208, 자부담: 1,870)
 - * 시설개선단가 1가구당 253천원(전년도와 동일)
- 추진방향
 - 공모방식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가스시설개선
 - 사업주관은 지자체, 사업추진(시설검수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
- 추진일정



3 사업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이상이면서 가스시설시공업이 주력분야로 등록된 업체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관할 소재 업체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개정 21.12.28>

4 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22(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우편은 4.22일 마감일 16: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지역은 1개 시·군·구로 한정
- 구비서류
 - 신청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시공업등록증(공동사업자 포함), 국세완납증명서(원본) 각1부, 공동참여확인서(해당시) 등
- 접수장소 :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 및 지사

5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은 공모 및 “지역별 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
-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지사)장, 지자체 공무원, 사업시행부서 담당부장, LPG가스사업자단체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
 - 시·군·구별 개선대상 가구수에 따라 선정 사업자수 조정
 - 신청한 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사업자 선정
- 사업의 조기완료추진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

6 사업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 및 지사 ☎ 1544-4500

<대규모언어모델·LLM>

“언어학습 1.5배 빠르다”… 인텔, 엔비디아에 ‘AI칩 도전장’

차세대 칩 ‘가우디3’ 공개

“엔비디아 H100보다 성능 우수”
TSMC서 5나노 공정 생산예정
SMCI·HPE·델 등에 공급 전망
네이버, 인텔과 협업 ‘코랩’ 구성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한 차기 신제품을 공개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인텔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인텔 비전 2024’ 행사를 열어 최신 AI 칩 ‘가우디 3’를 소개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인텔은 새로운 칩이 엔비디아의 주력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보다 전력 효율이 두 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또 메타의 오픈소스 대규모언어모델(LLM) ‘라마(Llama) 2’와 아랍에미리트(UAE)가 개발한 LLM ‘팔콘’ 등에서 시험한 결과 데이터 훈련 속도는 1.5배 빨랐다고 강조했다.

가우디 3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대만 TSMC에서 5나

인텔 최신 AI 칩 ‘가우디 3’ 특징

- 엔비디아 ‘H100’보다 전력 효율 두 배 이상
- 대규모언어모델(LLM) 훈련 속도 1.5배
- 대만 TSMC에서 5나노 공정으로 생산
- 올해 3분기 출시 예정
- 델과 HPE, SMCI 등 고객사로 확보
- 가격 비공개… “엔비디아와 비교해 경쟁력”

※ 출처: CNBC

인텔의 최신 인공지능(AI) 칩 ‘가우디 3’. 사진제공 인텔

노미터(nm·10억분의 1m) 공정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출시 예정일은 올해 3분기다. 인텔은 미국 서버 제조업체 델(Dell)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 정보기술(IT) 장비제조업체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HPE) 등이 새로운 칩의 주요 고객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우디 3의 가격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텔 소프트웨어 부사장인 다스 캄하 우트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차별화된 개방형 통합 네트워크 온 칩, 업계 표준 이더넷을 사용했다”며 “이것이 (가우디 3가) 강력한 제품이라고 믿는 이유”

라고 강조했다. 엔비디아 H100 칩 가격은 현재 개당 3만~4만 달러(약 4060만~5400만 원) 정도다.

인텔과 미국 반도체 기업 AMD는 엔비디아에 대적할 칩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지난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80%를 넘었다. AI 붐에 힘입어 주가는 최근 1년간 3배 이상 폭등했다. 시가총액으로는 미국 3위로 올라섰다.

인텔이 새로운 칩을 공개함에 따라 업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AMD는 차세대 GPU인 MI 300X를 출시했으며, 이미 메타와 마이크

로소프트(MS)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AI 칩 ‘B200’을 공개했다. H100보다 처리 속도가 최대 45% 빠른 제품으로, 올해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개발 경쟁 가속화가 결국 AI 칩 수요 업체들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NBC는 “생성형 AI를 실행하고 엔비디아의 GPU를 구입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추가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텔의 제니 바로비안 전략·제품 담당 부사장은 “우리 고객들은 컴퓨팅 리더인 인텔이 생성형 AI의 물결을 따라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하는 해결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텔은 이날 행사에서 엔비디아에 대항할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네이버를 꼽기도 했다. 인텔은 “네이버는 클라우드에서 온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고급 AI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한 강력한 LLM을 개발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우리 가우디의 기본 역량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겔싱어 CEO는 기조연설에서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네이버를 몰랐다”며 “그러나 네이버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이자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뒤이어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영상으로 등장해 축사를 전했다. 이후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이 직접 행사장에 등장, 무대에 올랐다. 하 센터장은 “가우디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인텔과 함께 다양한 스타트업, 학교들과 협업하는 ‘코랩(Co-lab)’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을 지배하는 배경 중 하나로 ‘쿠다(CUDA)’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꼽히고 있다. GPU 프로그래밍 언어인 쿠다는 현재 개발자들이 AI 앱을 개발하는 데 널리 쓰이는 업계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전아현 기자 cahyun@

“K-가전, GE·월풀도 제쳤다” 삼성전자, 美가전 점유율 1위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 집계
지난해 매출·수량 기준서 1위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광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최대 가전 시장인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10일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21%를 차지했다. 이어 LG전자 19%, GE 18%, 월풀 15% 순이었다.

수량 기준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19%로 1위를 기록했다. GE는 17%, LG전자는 16%, 월풀은 16%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32%는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브랜드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이어 LG전자(29%), GE(28%), 월풀(28%) 순으로 높았다.

삼성전자는 AI 기반으로 연결성과 사용성이 업그레이드된 신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미국 가전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4년형 비스포크 신제품에 고성능 AI 칩이나 카메라, 센서를 탑재해 다양한 AI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내부 카메라가 입·출고 되는 식재료를 인식하는 ‘AI 비전 인사이드’를 적용했다. 올인원 세탁건조기인 비스포크 AI 콤보는 AI 기반으로 세탁물의 무게와 종류, 오염도를 감지해 세탁하고, 최적의 상태로 건조까지 해준다.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는 170만 개의 사물 데이터를 사용한 AIDNN(Deep Neural Network) 모델을 기반으로 전면 카메라 센서를 활용해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3일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옥외광고를 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선보인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영상. 사진제공 삼성전자



뜨거운 야구 열기 벌써 100만 관중

시즌 70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한 올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이 관중으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롯데 “매장 빼라” 일방통보… 法 “손해배상해야”

롯데아울렛이 1년 계약을 맺은 솜메니저에게 4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매장 철수를 통보하자 법원이 “나머지 8개월 치 손해를 물어주라”고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은 솜메니저 A 씨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8500여만 원 전액을 롯데쇼핑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 씨는 2021년 11월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브랜드 B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까지 총 1년이었고, 월 매출 8000만 원 발생 시 수수료 11%를 지급하고, 1억 원 초과 시 1%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명시됐다.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4개월간 매달 1100만~1200만 원 사이의 판매 수수료를 청구했다. 판매수수료 규정에 따라 역산하면 매월 1억 원가량의 매출을

롯데아울렛서 1년 계약 맺었지만 4개월만 매장철수 요구에 손해 1심 “8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계약 4개월 차에 접어든 2022년 2월 롯데쇼핑이 돌연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롯데쇼핑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3월 31일까지 매장에서 퇴거해 달라”고 통보했고, 강제로 매장을 정리하게 된 A 씨가 근무하지 못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구한 것이다.

롯데쇼핑 측은 A 씨와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A 씨가 카카오톡으로 “마지막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재고 조사나 물품 이동 등 실제 철수 절차에도 협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철거에 협조한 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쇼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영업장소를 바

꾸고 상품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A 씨 매출액을 조절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만큼, A 씨가 계약 해지 통보나 매장 철수 절차에 대한 협력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면서 “A 씨가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특히 양측이 사전 작성한 계약서에 “매장 폐쇄, 영업정지 등이 발생한 경우 솜메니저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A 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쇼핑이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

롯데쇼핑은 A 씨에게 대체 근무지를 제시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 씨가 모두 거절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기각했다. 기존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편도 100km 넘게 떨어진 롯데백화점 상인점을 근무지로 제시해 사실상 A 씨가 응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1년 계약과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봤다.

박꽃 기자 pgot@

The new IONIQ 5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케어받는
현대자동차 EV 에브리(EVery)케어 3가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 1. 2년치 충전비(최대 160만 충전 크레딧)
또는 홈 충전기 설치 지원
- 2. 큰 사고 시 신차 교환
- 3. 중고차 가격 보장

*EV 에브리케어 확인하기



■ 구입 문의 전화 및 고객센터: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Long Range 2WD(별도인 형) 19" 휠: 복합 5.2km/kWh(도심5.6km/kWh, 고속도로4.6km/kWh) | CO2 배출량 9g/km | 국산지 장력전압(전용용량): 697V 120.6kWh | 공차중량 2,015kg ▶ Long Range 2WD(19") 휠: 복합 5.9km/kWh(도심5.6km/kWh, 고속도로4.5km/kWh) | CO2 배출량 9g/km | 국산지 장력전압(전용용량): 697V 120.6kWh | 공차중량 2,015kg ▶ Long Range 2WD(20") 휠: 복합 4.9km/kWh(도심5.2km/kWh, 고속도로4.4km/kWh) | CO2 배출량 9g/km | 국산지 장력전압(전용용량): 697V 120.6kWh | 공차중량 2,025kg ▶ Long Range AWD(19") 휠: 복합 4.8km/kWh(도심5.2km/kWh, 고속도로4.3km/kWh) | CO2 배출량 9g/km | 국산지 장력전압(전용용량): 697V 120.6kWh | 공차중량 2,120kg ▶ Long Range AWD(20") 휠: 복합 4.5km/kWh(도심4.9km/kWh, 고속도로4.0km/kWh) | CO2 배출량 9g/km | 국산지 장력전압(전용용량): 697V 120.6kWh | 공차중량 2,130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로의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N Line 모델 연비는 정부 인증 절차 완료 후 공개 예정입니다. ※ 동력 시스템(구동축, 인출, 타이머) 모델에 "별도인형 장력"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형과 별도인형 장력 차량의 연비 동일 인증 사항입니다. ※ 공차중량, 굵기 및 굵기중량을 하지 않습니다. ※ EV 구매 충전 혜택: ① 최대 160만 충전 크레딧 이상 지원 (※ 충전 크레딧 혜택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 현대자동차 지원/대리점에 문의) 또는 ② 홈 충전기+설치 공사 이상 지원(160만 상당) ※ 한전 플러그 앤드 고크 부양 ■ 신차 교환 : 차량 사고 후 1년 이내 접수하고, 차량 시 사고 교환 비용 지원 (단, 현대 승용 RV 신차 구매 시 혜택 제공, 제네시스 제외) ※ 보조금 문제로 인하여 미충 차량 불가 ※ 자세한 내용은 한국 현대자동차 지원/대리점에 문의 ■ 안전거시 보장: 전기차 구매 후 3년 내 현대자동차로 대체 시, 중고 전기차 최대 55% 잔가 보장 ※ 잔가 보장 대상 차량: IONIQ 5, IONIQ 6, 고나 EV(문전 고습충/향배인출/평압충 제외) ※ 자세한 내용은 현대닷컴 서비스 소개 페이지 또는 한국 현대자동차 지원/대리점에 문의 ■ 현대자동차는 지원/대리점의 카리스타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한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를 같은 가격으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수출·소비 경기회복 온도차 커… 3高가 내수 발목잡나

수출과 내수 간 경기 회복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 지속 여파로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우려스러운 점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최근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까지 겹쳐 내수 부진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일 관세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5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1%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핵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35.7% 늘어난 117억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등 정보기술(IT) 전방 산업의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낸드를 중심으로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 물량도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AI 확산으로 우리나라가 큰 장점을

지난달 수출액 작년보다 3% ↑
반도체, 36% 늘어난 117억弗

연준 금리 인하 보류說·고유가
고환율 등 물가 상승 압력 키워
2월 소매 판매 3개월만에 감소

가진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투자도 늘어나는 반도체 장기회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달리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2월 재화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3.1% 줄어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3.1% 감소는 지난해 7월(-3.1%)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금리 장기화, 생산시설 공사,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승용차(-17.8%)와



통신기기 및 컴퓨터(-10.1%) 등은 대폭 줄었다. 서비스 소비도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4.5%),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1.1%), 교육 서비스업(-1.3%)은 마이너스 성장했다.

2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3% 늘었지만 이는 변동성이 큰 선박 등 운송장비(23.8%)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부진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년 대비로는 0.3% 감소했다. 2월 건설기성(불변)도 전월에 집중됐던 공사 마무리 작업의 영향이 축소되면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해주는 건설수주(경상)의 경우 민간부문(-30.7%)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4.1% 줄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향후 건설투자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수출과 내수 간 경기회복 온도차는 더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3고(高) 현상이 대두해 내수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

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 데다, 중동발 정세 불안 속에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에 안착하면서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흐름 속에 고환율까지 고착할 조짐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달러(안전 자산) 선호 여파로 1350원 선까지 치솟았다.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이는 물가 상승 억제에 위한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韓 국민 1인당 소비〉 1년에 26만5000원 ‘해양관광’

관광객 수 부산·제주·강원 순
동해안은 여름철 수요 많고
제주는 사계절 꾸준히 찾아
20대 이하 젊은층 활동 활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해양관광에 평균 26만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NICE지니데이터와 전국 연안 지역 489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가명 처리된 이동통신 데이터(LG유플러스)와 신용카드 소비데이터(NH농협은행)를 결합해 우리나라 연안·어촌관광의 실제 소비행태를 분석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책연구원이 가명정보 빅데이터 결합방식을 통해 연안·어촌관광 실제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일선 KMI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장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내국인 해양관광객은 1인당 평균 26만5464원을 사용했다. 연령별로는 가족형 관광이 많은 50대(30만5931원)와 40대(28만9182원)의 지출액이 컸다. 1년간 연안·어촌을 방문한 관광객은 극성수기인 8월(10.5%)에 가장 많았고, 10월(5.6%)에 가장 적었다.

지역별 해양관광객 수는 부산이

15%로 가장 많았고 제주(13.2%), 강원(12.7%), 전남(12.5%), 충남(1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2.4%), 전북(4.2%), 경기(5.0%)의 관광객 수는 적었다. 해양관광객 1인당 연간 평균 지출액은 제주가 24만1726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19만8759원), 경기(19만493원), 경남(17만3102원), 울산(17만2100원) 순이었다. 여름 휴가철 해양관광객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7-8월 성수기 동안 강원과 경북의 관광객 증가율이 각각 65.4%, 33.1%에 달해 전국 평균 22.5%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제주는 3.6%에 그쳤다. 동해안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율이 높고 제주는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한다는 의미다.

연령대별 관광객 증가율은 20대미만이 41.6%, 20대는 34.5%를 기록해 여름 휴가철 젊은 층의 해양관광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덕 KMI 원장은 “앞으로 관련 기초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해양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분석 결과가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관광산업 육성 전략과 해양수산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흔 기자 sqgood@

美와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워싱턴 방문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흑자국으로 올라선 미국과 첨단산업 및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경제협력 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이번 행보는 안 장관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 일정으로 안 장관은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과 통상 현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 흑자국으로 올라선 미국과 경제안보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 반도체 보조금, 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싱크탱크를 방문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기술가치투자 이제 퍼트려(PTR)!
SK증권 PTR랩

PTR : 주가기술비율(Price Technology Ratio)로 성장사가 보유한 특허가치를 주가와 비교하는 지표임.
PEROIL PBR처럼 기술가치대비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투자자는 랩 계약에 대하여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랩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랩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기 전에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잘 이해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이 랩 계약의 선취수수료는 없으며, 운용보수 연 1.5%(분기별 0.375% 후취),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협의로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1-05246호
1302.11.19 ~ 2022.11.18
9989호 등록자산인 신사출 제23-907호
1302.11.19 ~ 2023.11.18

10년간 10조弗… 美·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재정 휘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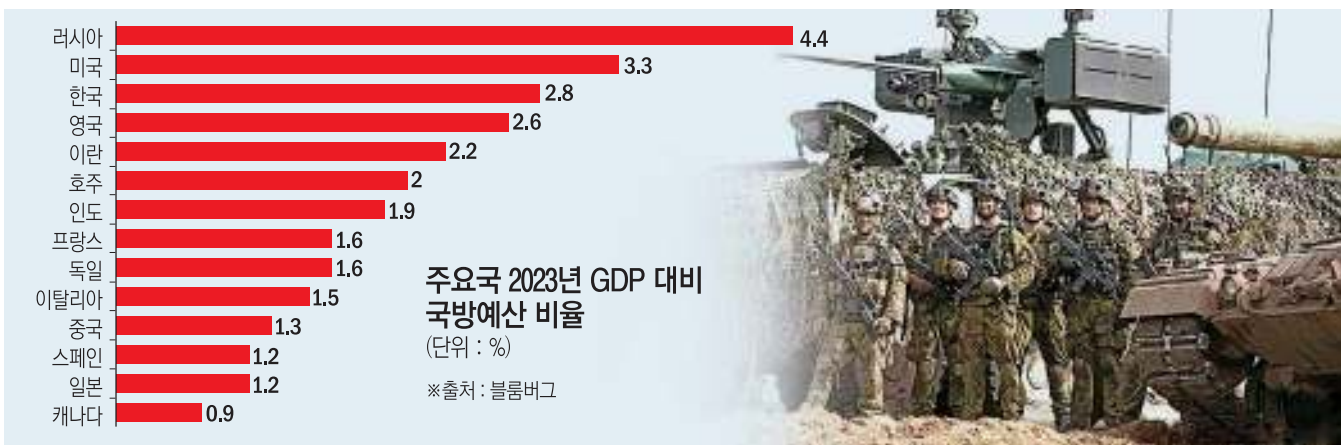
〈향후〉

美·동맹국, 中·러시아 군사 전체 GDP의 4% 국방비로 썩어야할 판 작년 전세계 사상최대 지출 기록 일부 국가, 부채 위기 빠질수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에따른 ‘재무장 경쟁’에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붓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냉전 시대가 접어들면서 막대한 국방비용 부담으로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조 달러(약 1경3540조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을 투입해야 할 위험에 놓였다고 추산했다.

세계가 둘로 쪼개짐에 따라 냉전 시대처럼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예산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불안정한 재



정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방 정부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2조 2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긴박한 중동 정세, 중국군 확장 등 세계정세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향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유럽 국가 다수는 이미 군사력 증강에 나선 상태다. 독일 연방군은 14년 만에 의무 복무 부활을 검토하는 등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 군 개혁에 착수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향후 12년간 방위비를 6000억 크로네(약 76조 1040억 원) 늘리는 ‘역사적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비 경쟁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니퍼 웰치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 수석 지리경제학 애널리스트는 “냉전 이후 ‘평화 배당금’이 끝나가고 있다”며 “이는 공공재정을 비롯해 방위산업체,

금융시장 등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GDP의 2%를 군사비 지출에 할당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연합(EU)의 부채 감축은 상당 부분 지연된다. 이 비율을 4%로 끌어올리면 EU의 일부 취약한 국가들은 정부 부채를 더 늘리거나,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국제

를 추가 발행해 국방비를 조달하면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게 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올해 144%에서 2034년까지 179%로 치솟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미국도 국방예산을 현재 GDP 대비 3.3%에서 4.0%로 상향하면 향후 10년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3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은 앞으로 수년간 제한된 세수 속에서 국방예산과 점점 더 커지는 복지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 고위 경제 정책 관리를 지낸 크리스토퍼 스마트아브로스그룹파트너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면 부채가 계속 늘어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충(방위비)’과 ‘버터(복지)’를 모두 선호하는 정치인들의 세계에 살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더 많은 부채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中, 美·호주산 주문 취소에… 밀 가격 급락

밀 선물 가격 연초보다 10%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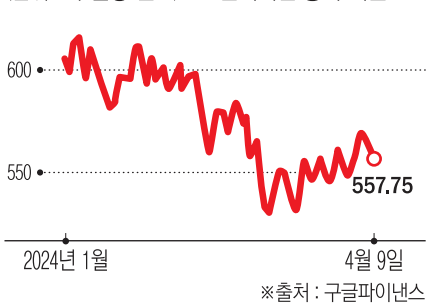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 중국이 최근 미국과 호주의 밀 수입을 대거 취소하자 밀 가격이 급락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식량 안보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 글로벌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닛케이)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은 현재 부셸당 5.5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기록한 3년 반 만의 최저치보다 약간 상승했지만, 연초보다는 약 10% 떨어졌다.

중국의 대규모 밀 수입 주문이 연이어 취소된 것이 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중국이 50만4000톤(t)의 밀 주문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미국의 대중국 전체 밀 수출량의 절반가량이며, 199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취소된 것이다.

또 호주밀의 중국수출도 100만 톤 규모가 철회되거나 연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최근 전했다. 중국은 최근 잇따른

시카고상품거래소 밀 선물 가격 (단위: 부셸당 센트) ※ 현지시간 증가 기준



밀 주문 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본 노린추킨연구소의 루안웨이 연구원은 “중국이 과거에 체결한 값비싼 밀 수입 계약을 피하고, 더 낮은 가격에 재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주문 취소 이유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물가 급등과 미국과의 긴장으로 지난해부터 식량안보에 더욱 집중해 왔다. 6월에는 국내 곡물 생산을 강화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해 ‘식량안보법’을 발효할 예정이다.

이진영 기자 jy1010@



미국 애리조나, 160년 된 낙태 금지법 부활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을 되살린다는 판결을 내리자 애리조나주 투산시에서 여성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 대법원은 산모의 생명을 구해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1984년 만들어진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찬성 4 반대 2로 내렸다. 이날 판결로 미국 대통령 선거 대표 경합주 중 한 곳인 애리조나에서 낙태권이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산(미국)/로이터연합뉴스

피치, 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공공 재정 위험”

〈A+〉

부채 증가·경제성장률 둔화 이유로 GDP 증가율 4.5%로 하락 예상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은 단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피치는 “재정 정책이 향후 몇 년간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는 부채의 꾸준한 증가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이었던 중국 정부 재정적자가 올해 7.1%까지 늘어날 것

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절인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피치는 또 “부동산에 의존해 성장해왔던 중국이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전망에 직면했다”면서 “중국의 공공 재정이 압박받고 있음을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위기는 여전하다. 앞서 8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스마오그룹은 15억 8000만 홍콩달러(약 2732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중국 국유은행으로부터 청산 청원을 당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도 전망 하향의 원인으로 꼽혔다. 피치는 “명목 GDP 증가율의 하락으로 레버리지 관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발채무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GDP 증가율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4.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신용등급은 ‘A+’로 유지했다. 피치는 “거대하고 다각화된 경제, 경쟁국 대비 견조한 GDP 성장 전망, 글로벌 상품 무역에서의 핵심적인 역할, 국제 경제에서 위안화의 지위 등이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게리 웬 애널리스트는 “피치의 전망 수정은 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로 중국 공공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에서 신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재무부는 성명에서 “신용 전망을 낮춘 것은 유감”이라며 “피치가 부채 부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정책의 역할을 축소했다”고 반발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오픈AI·메타, 추론·계획 가능한 AI 곧 출시

“범용인공지능 실현 한 걸음 더”

오픈AI와 메타가 추론과 계획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AI) 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내년엔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AI)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픈AI와 메타 경영진은 이번 주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차기 버전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원을 받는 오픈AI

는 GPT-5로 불리는 다음 모델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메타 역시 앞으로 몇 주 안에 ‘라마3’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추론과 계획은 인간과 같은 인식 능력을 지닌 범용인공지능(AGI)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꼽힌다. AGI는 AI가 인간의 지시 없이 스스로 추론해 성장해나가는 단계로, AI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다.

머스크 CEO는 전날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영리한 것을 AGI로 정의한다면 이는 내년 말, 즉 2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C-커머스 ‘싼 옷’ 팔 때 ‘딴 것’ 더 많이 판 K-패션업

빅3 패션업 실적 날았다

고물가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패션플랫폼만큼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냈다.

LF·신세계인터내셔널·한섬 등 패션 대기업들이 지난해 대부분 실적 부진에 빠진 모습과 대조적이다. 사업 다각화와 카테고리 확대로 출구전략을 짰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무신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보다 40.2% 증가한 9931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1조 원에 성큼 다가섰다.

다만 영업이익은 2022년 113억 원 흑자를 낸 것에 비해, 지난해는 86억 원의 손실을 내 적자 전환했다. 무신사 측은 “본사 및 관계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일회성 주식보상비용, 투자 및 영업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그재그’ 운영사인 카카오스타일

무신사·카카오스타일·에이블리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성공,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

다.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

퍼레이션도 작년 매출은 2595억 원으

로 전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 지

도 지

난해 역대 최

대매출을 냈다. 카카

오스타일의 작년 매출

은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518억 원

에서 지난해 198억 원으로, 320억 원

손실 규모를 줄였다. 특히 핵심 플랫

폼인 지그재그는 비용구조 효율화에

<

국내선 주춤했지만… 현대차·기아 1분기 실적은 ‘맑음’

제네시스 북미 사상최대 판매
SUV 등 고수익 모델 성장세
달러 강세로 환율까지 우호적
증권사 실적 전망치 넘을 수도

현대자동차·기아가 내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시장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둘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북미 시장에서의 선전과 유리한 환율,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확대 등이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

스)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9조 7732억 원, 영업이익은 1.3% 감소한 3조 5456억 원으로 전망된다. 기아의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8% 증가한 24조6816억 원, 영업이익은 4.23% 줄어든 2조7624억 원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던 작년에 비해 실적 기대치는 다소 낮아졌다. 다만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3조 6000억 원으로 높였다.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 양호한 환율 등이 호실적의 요인으로 꼽힌다. 내수부진으로 판매 물량은 줄었으나 수익성이 개선되며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라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1분기 판매 실적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100만 2608대를 판매했다. 해외 판매는 전년 대비 1.4% 늘었지만 국내 판매가 16.3% 줄었다. 같은 기간 기아의 판매 실적은 76만 52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다. 내수 판매가 부진했고 현대차 아산공장, 기아 화성공장이 설비 공사를 진행하며 일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

반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판매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1분기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0.7% 늘어난 19만 9851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제네시스는 1분기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4% 늘어난 1만 4777대가 팔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종의 판매 호조에 따라 평균판매단가(ASP)가 상승하며 성장을 견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환율 여건도 이어지고 있다. 최

근 원·달러 환율은 1350원을 웃돌며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내수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기아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수익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대차는 환율 효과를 누리기 위해 국내 공장의 수출 비중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승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물량은 감소하고 인센티브는 상승하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믹스 개선을 통해 다시 한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미·유럽 비중이 높아졌고 제네시스와 SUV,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베노티엔알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착용형 이족보행 로봇 엑소모션(XoMotion).
사진제공 베노티엔알

삼성·현대차에 中企까지… ‘휴머노이드 패권’ 경쟁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준비 중
삼성,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투자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로 앞서
베노티엔알, 이족보행 로봇 공개

국내 기업들이 업계를 막론하고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 개발에 나서면서 불꽃 튀는 경쟁이 막을 올렸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이 투자와 인수를 통해 시장 진출 전략을 본격화하자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들도 쟁점을 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비슷한 형태와 동작을 갖춘 로봇이다. 사람과 유사한 모양, 크기, 관절 구조 등을 갖춰 인간과 상호 작용하거나 인력을 대체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보행 △그리퍼 △센서

△배터리 등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이다.

10일 골드만삭스리서치가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AI 액셀러레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380억 달러(5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선제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양산을 준비 중이다.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피규어 AI’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국내 업체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로봇 플랫폼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4.99%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 투자전문 자회사 삼성넥스트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1X테크놀로지스에 투자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미국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가 물건을 손으로 운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분야별 우수한 로봇 기술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들도 휴머노이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노티엔알은 지난해 10월 착용형 이족보행 로봇 엑소모션(XoMotion)을 공개했다. 웨어러블 로봇의 이족보행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할 계획이다. 베노티엔알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캐나다 로봇 전문 기업 휴먼인모션로보틱스를 인수하고 합작법인 휴먼인모션로보틱스 아시아를 설립했다. 로봇 상·하체 관련 특허로 ‘하이브리드 병렬 및 직렬 조작기를 활용한 차체 외부의 목표 관절 3D 모션 생성’, ‘운동을 사람의 관절로 전달하는 운동전달 메커니즘 개발’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복잡한 인체의 하지 관절을 정교하게

구현한 엑소모션은 △다수의 액추에이터 △지능형 소프트웨어 △센서 △알고리즘 등을 바탕으로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자연스러운 이족보행이 가능하다.

뉴로메카는 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개발한 ‘위빙 그리퍼’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위빙 그리퍼는 기존 소프트 그리퍼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내구성과 하중 제한이라는 기존의 단점을 극복했다.

클로봇은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국내 로봇 서비스 제공 및 확산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력을 토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동 순찰 로봇 ‘스팟(spot)’에 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를 통합하고, 원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동욱 기자 toto@

대기업 직원 줄었지만 임원은 작년 255명 ↑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 직원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임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원 1인당 직원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임직원 수를 공시한 337개 사의 2022~2023년 임원 수와 직원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임원은 2.1% 증가하고 직원은 0.1% 감소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작년 전체 임직원 수는 132만 3037명으로 전년 대비 1442명 줄었다. 이 기간 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131만 855명으로 1697명 감소했고, 임원은 1만 2182명으로 255명 늘었다. 이에 따라 임원 1명당 직원 수는 2022년 110명에서 지난해 107.6명으로 줄었다.

업종별로는 은행권의 임원 1인당 직원 수가 366.8명으로 전년도 405.8명 대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직원이 1.4% (1229명) 감소하는 동안 임원은 19명 (9%) 증가했다.

공기업은 제외하고 임원 1명당 직원 수가 가장 높은 기업은 CJ프레시웨이(1293.3명)였다. 이어 △이마트에브리데이(1088.7명) △IBK기업은행(913.6명) 순이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삼성 고객이 ‘보이는 원격 상담’으로 ‘비스포크 AI 스템’ 사용법을 안내받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 로봇청소기 ‘비스포크AI 스템’ AS도 진화

업계 최다 113개 센터 엔지니어 배치

삼성전자서비스는 로봇청소기 신제품 ‘비스포크 AI 스템’ 출시에 맞춰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9일부터 서비스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비스포크 AI 스템 신제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의 기능, 올바른 사용 방법, 수리까지 엔지니어의 전문성을 갖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비스포크 AI 스템에는 국내 최초 물결레 스템 살균 기능, 인공지능(AI) 기반 사물 인식 등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113개 서비스센터에 로봇청소기 전문 엔지니어를 배치해 고객이 손쉽게 제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서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엔지니어 출장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 교체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김민서 기자 viaieporlune@

잘 팔리는 차 1~4위 모두 SUV

1분기 기아 쏠렌토 2.7만대
톱5 세단 빠진 건 5년만에 처음

1분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포함한 레저용차(RV)가 판매 상위권을 차지했다. 세단 모델은 국내 판매 톱5에 포함되지 않았다.

1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3월 ‘베스트셀링카’ (상용차 포함) 1~4위는 기아 쏠렌토(2만 6929대), 현대 차싼타페(2만 3313대), 기아 카니발(2만 2681대), 기아 스포티지(1만 9661대)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 차종으로, 국내 자동차 판매 ‘톱4’를 RV가 독식했다.

국내 1톤(t) 트럭 시장의 대표 차종인 현대차 포터는 이 기간 1만 9314대 판매량으로 5위를 차지했다.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국내 판매량 ‘톱5’에 세단이 포함되지 않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2020년에는 현대차 준대형 세단

그랜저와 기아 중형 세단 K5, 현대차 중형 세단 쏘나타가 톱5에 들었다. 이후 3년 간 그랜저와 현대차 준중형 세단 아반떼, 제네시스 준대형 세단 G80 등이 번갈아 가며 판매량 5위안에 1~2차례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해 베스트셀링카에 뽑혔던 그랜저마저 올해 1분기 국내에서 1만 3698대의 판매량으로 6위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 2만 9864대와 비교해 54.1% (1만 6166대) 줄어든 수치다.

그랜저가 예년과 비교해 저조한 실적을 낸 주요 이유는 올해 초 충남 아산공장이 전기차 생산설비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한 점이 꼽힌다. 여기에 SUV 인기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판매 순위를 10위까지 확대할 경우 7위 제네시스 SUV인 GV80(1만 3552대), 8위 기아 레이(1만 2794대), 9위 기아 셀토스(1만 2659대)를 포함해 모두 7종이 RV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시스 세단 G80은 1만 2048대로 10위를 기록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이준석

임성재

황중곤

정찬민

이수민

박상현

조우영

서요섭



2024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페럼클럽
04. 25 (목) - 04. 28 (일)



우리금융챔피언십
티켓 이벤트 바로가기

SBS Golf 2

생중계 채널번호 안내

GENIE TV
62

Btv
972

U+ tv
99

skylife
219

주최 | 우리금융그룹

주관 | KPGA 한국프로골프투어
KOREA PROFESSIONAL GOLF TOUR

방송 | SBS Golf 2

에듀테크 부진에도… 천재교육 ‘매출·수익’ 두 토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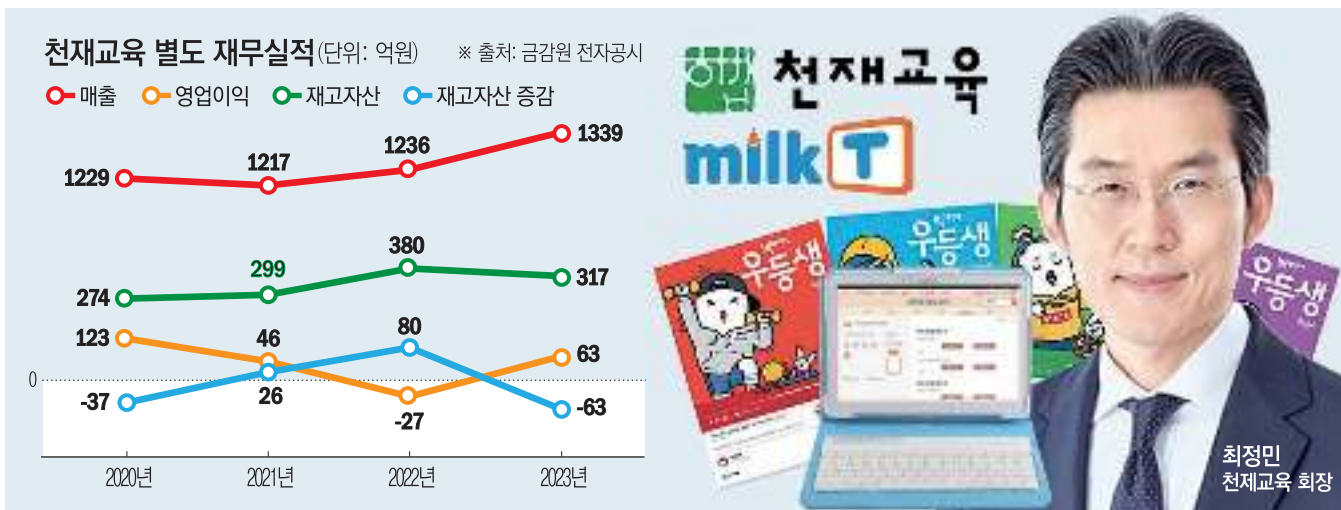
적자 턱아라운드 성공

작년 신간 개발 줄어 고정비 감소
매출 이익 132억 ↑ 수익성 확보
영업순익 4배 경증 현금흐름 개선
웅진씽크빅·대교·교원 실적 맥뭉취
교재갑질 논란엔 “문제없다” 선긋기

스마트러닝 ‘밀크T’로 대표되는 에듀테크, 참고서 업체 천재교육이 지난해 업계 전반의 침체에도 매출과 수익 ‘두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해 그비결이 이목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은 에듀테크 업계에 있어 코로나19 특수 종료로 어려웠던 한해였다. 웅진씽크빅은 매출이 4.6% 줄고 영업이익은 79.8% 급감했다. 대교는 적자폭을 줄이긴 했으나 매출 감소, 영업손실이 이어졌고 교원도 작년 교육사업에서 매출 8762억 원, 영업손실 393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천재교육은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별도기준매출은 1339억 원으로 2022년보다 8.4% 늘



었고 영업이익은 63억 원을 기록하며 27억 원의 적자에서 턱아라운드하는데 성공했다.

천재교육은 종속회사로 천재상사를 두고 있는데 통상 300억 원대의 매출과 흑자를 낸 것을 고려하면 천재교육의 연결 실적은 별도기준보다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교육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한 데는 매출원가를 적절히 통제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매출원가는 782억 원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적었던 2022년 811억 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매

출원가율로 보면 65.6%에서 58.4%로 7.2%포인트(p) 개선됐다. 이에 작년 매출총이익이 2022년보다 132억 원이 증가했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2022년에는 신간을 개발하느라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고 원가율이 높았으며, 작년에는 신간 개발이 감소하고 2022년에 개발된 신간이 판매돼 매출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면서 “신

간은 초기 고정비가 많이 투입돼 원가율이 상승하고 매출이 안 좋아지는 구조로, 이러한 영향으로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천재교육은 기업의 영업부문 현금창출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도 대폭 개선한 수치를 보였다. 작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순이익 74억 원의 4배를 웃도는 316억 원을 기록하며 플러스

로 전환했다.

현금흐름 개선에는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감소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매출채권은 127억 원, 재고자산은 63억 원이 줄었다. 작년 줄어든 재고자산의 경우 천재교육이 영업 호조를 보이며 100억 원 전후의 영업이익·순이익을 기록한 2020년의 두 배에서 조금 모자란 수준이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천재교육은 대리점주에게 참고서 재고를 떠넘기며 이 과정에서 욕설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까지 이런 부조리가 계속됐으며, 대리점 총판 9명이 지난 달 피해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재고를 총판에 떠넘겼다는 주장은 일부 총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차례 법원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스타트업 근로자 10명 중 6명 “보상 충분하면 더 일하겠다”

(52시간 이상)

3~5년 경력자 추가노동 긍정적 경력 길수록 반대 성향 나타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10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미래노동포럼과 함께 스타트업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4.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 답변은 19.3%였다.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근로자의 3배를 넘어섰다.

추가노동 의향은 3~5년 경력에서 가장 높고, 경력이 길어질수록 긍정적 의향이 감소했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근로자가 추가 소득에 대한 수요가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은 소득이 적은 젊은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0.3%로 조사됐다. 확대에 동의하는 근로자 303명 중 60.7%는 월 단위 관리를 선호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원장은 “스타트업은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

며 “특히 창업 초기에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교수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라는 인식을 기초로 근로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은 서비스업의 확산과 디지털·정보 기술산업의 성장이라는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한다”며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스타트업계에선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핵심 노동 규제로 꼽는다. 벤처기업협회가 주 52시간제 개선 문제를 올해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이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저하하고,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한다고 지적해 왔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벤처기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근로영역이나 제조 기반의 일반적 근로자와 달리 해당 기업의 신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해 성과를 내는 벤처의 성공 방식이 불가능해져 혁신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기존의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정하고, 직종·직군별 근로시간 등 결정 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한성크린텍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대양엔바이오투

Water Solution

E CLEAN WATER

과기부 산하 기관장에 ‘정치인 낙하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이 4월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관장 중 32%에 해당한다.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신입 기관장 선임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배제하는 정치권 출신 ‘낙하산 기관장 인사’를 우려하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전체 41곳 중 13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다.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2월 5일 의원면직으로, 현윤경 소장 직무대행이 현재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도 지난해 11월 19일로 예정된 임기가 끝

핵융합에너지·안전성평가 등 3분의 1이 공석이거나 곧 임기만료 총선후 신입기관장 선임 속도낼 듯 일각 “정치권 인사 채워질라” 우려

났다.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1월 12일까지였으며,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월 4일까지였다.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이상률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3월 22일로 임기가 끝났다.

이달 8일로 임기가 끝난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은 총 5명이다.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 △한석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등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은 두 곳이다.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의 임기가 이달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은주 연구소장은 다음 달 22일 임기가 끝난다.

임기가 끝났더라도 규정에 따라 현직 기관장은 신입 기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장직을 수행한다. 리더십 부재를 막기 위함인데, 공석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연구프로젝트 등을 새로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이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과학기술분야출연연원장의 연임을 위한 기준이 완화됐지만, 실제 연임을 한 건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 유일하다. 2018년 7월 연구원장에 오른 김장성 원장은 2021년 8월 연임에 성공해 오는 8월까지 원장직을 맡는다.

관가에서는 총선이 끝난 만큼, 기관장 인선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과학계에 현안이 쌓여있는데 기관장 인선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중앙 부처 산하기관 중 기관장이 비어있는 곳이 100곳이 넘는 까닭에 보은성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한참인데도 총선 직전까지 후속 인선에 나서지 않은 기관이 수도록해 기관장의 전문성보다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산하 모 기관 관계자는 “(총선 이후 새로운 분이 오실지는) 가늠이 안다”면서도 “아직 공모가 나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임기가 끝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 시기	기관명
2023년 11월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월	한국과학창의재단
2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원 면직)
2024년 3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뽑아도 뽑아도 안나오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사 ‘자율규제’의 민낯

게임업체가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에 규제 발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했다고 주장해온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자체 전수조사에 나선던 게임사들이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하며 정보를 정정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웹젠의 ‘뮤 아크엔젤’,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등록 오류”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 아이템의 확률이 실제 적용 확률보다 높게 공시되면서 조작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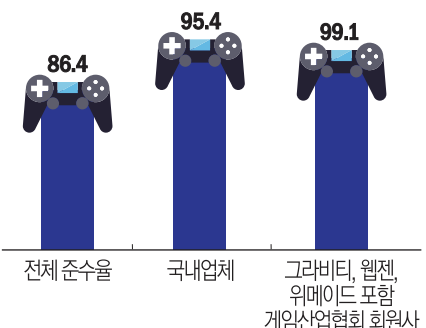
점이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해왔기에 시행령 이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확률 표기 오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2023년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확률형 유료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이 86.4%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의 준수율이 95.4%인 가운데 그라비티, 웹젠, 위메이드를 비롯한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의 준수율은 99.1%에 달한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2일 이전에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 (단위: %, 2023년 11월 기준)



※ 출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법 시행령 앞두고 자체 전수조사 잇단 확률오류 공지...조작논란 거세 게임산업協, 규제 준수율 99% 달해

“사기죄 해당 땐 검찰에 수사 의뢰” 공정위, 게임 불공정행위 엄단 시사

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2021년 넥슨메이플스토리에서 촉발됐

다. 확률 조작 논란이 불매운동으로까지 불거지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월 넥슨이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미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나리 기자 nari34@

“크립토윈터 끝났다”... 코인거래소 ‘업그레이드’ 한창

빗썸, 업계 최저 수수료 정책 강화 업비트, 초당 4만건 매매체결 지원 코인원도 애플차트 편의성 대폭 개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탄 가상자산 가격이 올해 정점을 찍으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가격 상승으로 시장에 돈이 다시 몰리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투자자 유치전에 나섰다.

1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9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인 7만3000달러(약 9884만 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날 기준 2만400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약 3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가상자산 투심이 본격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트래픽증가로서

비트코인 최고가 기준 거래소별 거래대금 비교 (단위: 달러)

2023년 3월 14일			2024년 3월 14일		
비트코인 가격		2만4000	7만3000		
거래소별 일일 거래대금	업비트	26억5000만	91억9600만		
	빗썸	5억1700만	17억1200만		
	코인원	1억2400만	1억8000만		
	코빗	940만	290만		
		고팍스	550만	470만	

※ 2024년 3월 14일: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달성

버 장애나 매매 지연 발생 등을 경험한 바 있다. 업비트는 2019년 4월 트래픽 급증으로 시세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마비됐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도 서버 장애를 겪으면서 거래소 구별 없이 모두 거래량 급증으로 인한 서비스 마비를 경험했다.

이에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 엔진을 확대했으며, 이후 초당 4만 건 이상의 매매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무료 수수료 정책을 이어왔던 빗썸은 올해 2월 거래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대신 업계 최저 수수료를 내세웠다. 기존 거래 수수료인 0.25% 대비 대폭 인하된 0.04%를 거래 수수료로 책정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들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다.

거래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보상을 주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도 확대했다. 빗썸은 메이커 주문으로 체결된 거래금액에 대해 등급별 최대 0.01%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을 최대 0.06%까지 늘렸다.

빗썸과 비슷한 시기에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진행했던 코빗 또한 지난달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했다. 코빗은 유료 수수료를 선택한 초기 0.07%의 거래 수수료를 책정했지만 이후 0.05%로 수정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김민승, 최윤영 공동센터장 체제로 개편을 진행했다.

코인원은 수수료 정책보다는 거래소 서비스 기능이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코인원은 지난달 애플리케이션 차트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차트 상단과 하단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고 차트 설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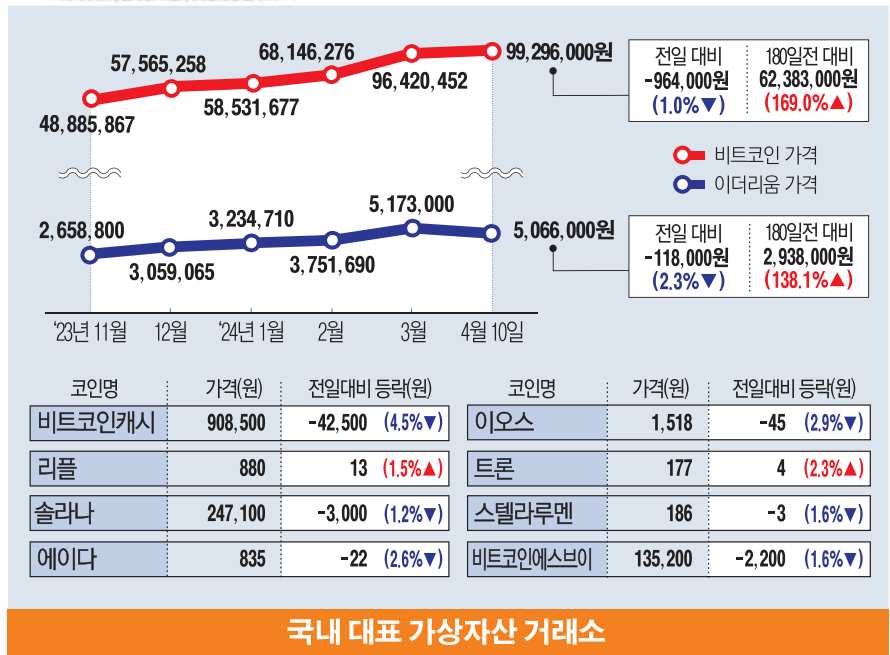
거래에 참고할 신규 지표도 추가했다.

현재가 기준 가장 유리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차트에 보여주는 최유리지정가호가 표시 기능, 설정된 알림 가격 표시, 90일 이내 체결된 매수와 매도 주문을 차트에 표시할 수 있는 체결내역 표시 등이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빗썸 지수 (2024년 4월 10일 17:00, KST)



‘세노바메이트’ 美 성장가도… SK바이오팜 실적 동트는다

〈뇌전증 신약〉

출시 5년… 판매 가속도

SK㈜의 신약 개발 기업 SK바이오팜이 본격적인 이익 증가 국면에 접어들었다. 출시 5년차를 맞이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판매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매출보다 이익이 한발 앞서는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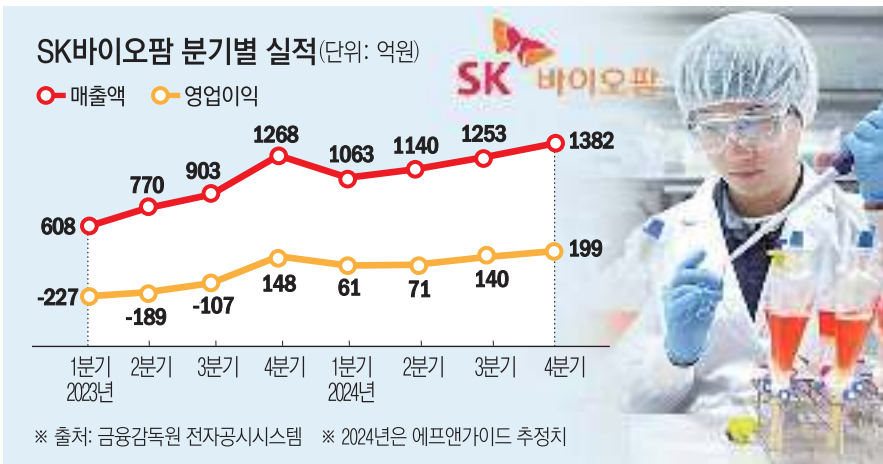
10일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올해 분기마다 영업 이익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회사가 고대하던 연간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분기 실적 추정치(컨센서스)는 매출액 1063억 원, 영업이익 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608억 원, 영업손실 227억 원이었다.

발굴부터 모든 과정 직접 진행 처방 건수 기존 약물 두배 이상 마진율 90%… 이익 급증 구조 올해 이익률 10%대 진입할 듯 ‘연매출 10억弗’ 시점 단축 기대

실적은 분기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내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분기 71억 원, 3분기 140억 원, 4분기 199억 원으로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세노바메이트는 지난해 미국에서 분기마다 매출 성장 폭을 갈아치웠다. 출시 44개월 차인 지난해 12월 처방 수(TRx)는 2만6059건으로, 기존 약물의 속도를 두 배 이상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SK바이오팜은 올해 미국에서 월간 처방 수를 3만 건 이상으로 끌어올려 올해 뇌전증 처방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합성신약인 세노바메이트는 마진율이 90%를 넘는다. 팔면 팔수록 이익이 급증하는 구조다. 올

해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4864억 원, 영업이익 48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10%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처방 범위를 넓히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적응증을 전신 발작으로 확장하고, 소아와 청소년까지 투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내년까지 신약허가신청(NDA)이나 보충 허가신청(sNDA)을 낼 예정이다. 세노바메이트를 연매출 10억 달러(1조1350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로 만드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 SK바이오팜은 해당 시점을 2029년으로 제시했지만, 시장에선 이보다 더 빠를 수 있던 전망도 나온다.

관건은 세노바메이트의 뒤를 이을 품목의 발굴이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직접 판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2의 상업화 제품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시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현지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한 혁신신약이다. 2019년 11월 미국 FDA 승인을 받아 2020년 5월 출시됐다.

유혜은 기자 euna@

美 FDA 승인 신약 85%가 ‘표적치료제’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된 신약 10개 중 약 8개가 표적치료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FDA에서 승인된 55개 신약 중 표적약물이 47개였다. 모달리티(치료 접근법)별로는 분자 26개(55.3%), 단백질 기반 17개(36.2%),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4개(8.5%)다. 지난해 중국에서 승인된 87개 신약 중 표적약물은 59개다.

표적치료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포 또는 단백질이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치료제로 주로 항암제로 많이 쓰인다. 암세포는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 주변의 정상조직에서 영양분을 끌어다 쓰기 위해 혈관을 만든다. 표적치료제(표적항암제)는 암세포로 이어지는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거나 영양을 공급하는 신경혈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

기존 항암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 모두 공격해 독성을 일으키지만,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이상이 생긴 신호전달계를 표적해 정상세포 손상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표적치료제는 기존 치

료제보다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어 질병 타겟 치료의 주요 약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허가받은 표적 약물은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 화이자의 급성 편두통 치료제 자브즈프렛, 안센의 혈액암 치료제 탈베 등이다.

대표적인 표적치료제는 로슈의 허

지난해 55개 중 47개 표적 약물 질병 원인 세포·단백질활성 억제 면역치료제와 시너지효과 내기도 대부분 항암제… ‘허셉틴’ 대표적 계속 사용하면 내성 생길 수 있어

셉틴이다. 허셉틴은 사람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HER2) 양성 유방암 환자와 전이성 위암 치료에 사용하는 표적항암제다. 이 약은 HER2 양성 암세포가 과잉으로 증식하는데 관여하는 HER2에 결합해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시킨다.

표적치료제는 면역치료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한다. 최근 암 치료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한 면역치료제

와 병용할 때 우수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이 단독 요법이 아닌 병용요법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이유다.

이 조합은 암 세포가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것에 개입해 면역 세포의 공격 능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면역요법의 효능을 향상시킨다. 단독요법보다 높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암환자들에 치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던 것이 장점이다.

반면 표적치료제도 계속 사용하면 기존 치료제처럼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새로운 표적치료제가 필요하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표적치료제를 계속 쓰면 내성이 생긴다. 현재까지 많은 종류의 표적치료제가 개발된 만큼 앞으로는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래 표적치료제는 암 세포가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메커니즘을 표적하고 면역세포와 종양의 상호작용을 방해해 효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RNA(리보핵산) 간섭, 유전자 편집, 기타 세포 내 표적화 등을 활용하면 더 정확한 치료 전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PCV13·PCV15백신 첫 접종 시기별 접종 횟수

※출처: 질병관리청

첫 번째 접종 시 월령(생후)		기초접종*	추가접종**
[표준접종]***	2~6개월	3회(2·4·6개월)	생후12~15개월 1회
7~11개월		2회	생후12~15개월 1회
12~23개월		2회	-
24~59개월(건강한 소아)		1회	-
24~71개월(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2회	-

*1세 미만 접종시 최소 접종간격은 4주, 그 이후 최소 접종간격은 8주. 최소 접종연령은 6주

**이전 접종으로부터 최소 8주의 간격을 두고 접종

***영유아의 표준접종 시기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3회 기초접종 및 생후 12~15개월 1회 추가접종

화이자 주도 폐렴구균 백신시장에 MSD ‘박스뉴반스’ 출시… 경쟁 예고

프리베나13, 現 점유율 70% 수준 박스뉴반스, 혈청형 2개 더 보유 두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 비급여 시장… 가격경쟁력 주목

국내 폐렴구균 백신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MSD의 15가 폐렴구균 백신 ‘박스뉴반스’가 국내 시장에 진입해, 화이자 ‘프리베나13’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백신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최근 ‘박스뉴반스’를 국내에 출시했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이달부터 접종이 시작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진입해 2개월~5세 미만 소아 대상으로 무료 접종된다.

박스뉴반스는 한국화이자제약의 13가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의 대항마로 꼽힌다. 프리베나는 지금까지 국내 허가된 동종 백신 중 가장 많은 혈청형을 보유해 시장을 주도해 왔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10가 백신 ‘신플로릭스’를 국내에 공급 중이지만, 의료현장에선 프리베나13에 대한 선호가 높아 점유율 7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스뉴반스의 차별점은 프리베나13에 포함되지 않은 22F와 33F 등의 혈청형을 보유한 것이다. 앞서 MSD는 23가 백신 ‘프로디악스’도 출시했지만, 이는 다당백신이어서 국내에선 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접종되고 있다. 따라서 박스뉴반스는 허가 당시 국내에서 가장 넓은 예

방 범위를 보유한 백신으로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박스뉴반스가 프리베나13과 교차접종이 가능하단 점도 주목된다. 박스뉴반스 출시전 프리베나13으로 1차 접종한 사람도 2차 접종시 박스뉴반스 선택이 가능하다. 두 백신 모두 NIP에 포함됐고, 허가 대상도 △생후 6주 이상부터 만 17세까지의 영아·어린이·청소년 △18세 이상 성인으로 동일하다. 교차접종이 후발주자로서 박스뉴반스의 약점을 상쇄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NIP 접종 대상을 제외하면 폐렴구균 백신은 비급여 시장이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 역시 시장에서의 승패를 판가름할 요소로 꼽힌다. 현재 프리베나13 접종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 정보 기준 13만 원으로 형성돼 있다. 박스뉴반스는 아직 비급여 접종비용 국내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백신 시장은 2021년 기준 26억7000만 달러(3조5178억 원) 규모를 기록해 2020년 대비 322.3% 급성장했다. 단기적으로 성장한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해도 약 3억6900만 달러(4059억900만 원) 규모로, 글로벌 백신 시장의 1.6%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렴구균 백신 분야는 예방 범위와 효과를 향상한 백신이 지속적으로 등장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화이자 식약처에 프리베나20의 허가를 신청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21가 백신을 개발 중이다. 한성주 기자 hsj@

휴젤, 새로운 슬로건 담아 CI·홈페이지 전면 개편



휴젤이 ‘당신을 빛나게 하는 힘(Power That Makes You Shine)’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에 맞춰 CI와 공식 홈페이지 새단장을 마쳤다.

10일 휴젤에 따르면 이번 새 CI와 홈페이지 변경으로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휴젤은 올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신 제제 허가를 획득하며 전 세계 네 번째로 빅3 시장(미국

슬로건 ‘당신을 빛나게 하는 힘’ 창사 후 첫 모델에 ‘이나영’ 발탁

·중국·유럽)에 모두 진출했다.

새로운 CI는 다양성·융합·글로벌을 의미했던 기존 푸른색 심볼은 그대로 유지했다.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기여하고자 하는 휴젤의 의지를 강조해 원의 형태와 색상을 간결하고 선명하게 변경했다. 신규 컬러 시스템인 ‘HUGEL Blue’를 도입했다. 새로운 CI는 휴젤 본사, 해외 법인, 계열사의 모든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차례

로 적용된다.

홈페이지는 정보 성격에 맞춰 상단 메뉴를 재구성했다.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변경했다. 또 휴젤은 창사 이래 최초로 기업 모델도 선정했다. 배우 이나영과 함께 기업 화보와 영상,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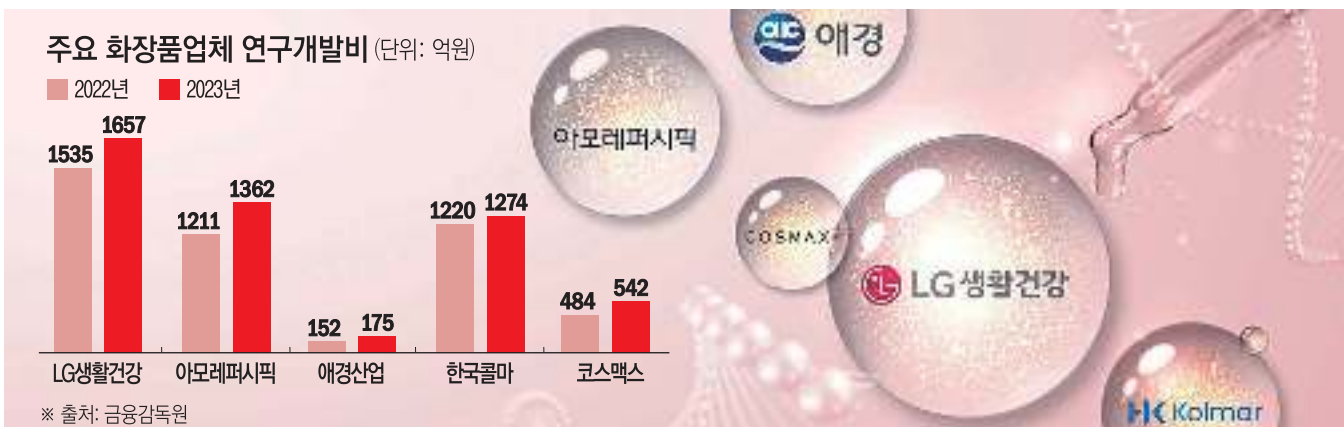
휴젤 관계자는 “이번 미국 진출을 발판 삼아 또 한 번의 글로벌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며 “슬로건 및 CI, 홈페이지 개편을 기점으로 소비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hsj@

“미래에 투자한다”… 연구개발비 늘리는 화장품 업계

LG생건, 3년만에 R&D 비용 증가
아모레, 전체 매출의 3.7% 차지해
애경산업, 중소 호황 힘입어 올인
한국콜마, 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국내 화장품 업계가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연구개발비(R&D)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업계 양대산맥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악화에도 연구개발비를 늘려 주목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R&D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중소 뷰티브랜드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개발방식) 업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도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뷰티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



르면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 5곳의 연구개발비는 50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연구개발비를 쓴 곳은 LG생활건강이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전체 매출 대비 3.5% 수준인 165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다. 3년 만에 연구개발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최근 3년간 LG생활건강의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2021년 1566억 원에서 2022년 1535억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657억 원으로 투자비용을 늘렸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도 2021년 2.5%에서 2022년 3.0%로 올라선 이후 지난해 3.5%까지 증가했다. LG생활건강의 경쟁사인 아모레퍼시픽은 전년(1211억 원) 대비 12.5% 늘어난 1362억 원을 썼다. 지난해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체 매출의 3.71%를 기록했다.

특히 연구개발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애경산업이다. 애경산업은 전년(152억 원) 대비 15.1% 늘어난 175억

원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했다. 매출액 대비 2.62% 수준이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도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127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썼다. 전년(1220억 원) 대비 4.4%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한국콜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5.79%로, 화장품 제조업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한국콜마는 현재 기술연구원 산하 △스킨케어연구소 △메이

크업연구소 △퍼스널케어연구소 등 11개 연구소에서 다양한 신기술 개발과 기술융합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특허를 929개 출원했으며, 594개를 등록했다. 지난해 1~9월에는 월평균 28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했다.

코스맥스는 전년(484억 원) 대비 12% 늘어난 54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썼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은 5.13%다. 코스맥스 역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늘려온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기능성성인 건수 1579건, 특허 등록건수 576건, 특허 출원건수 1301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대외 여건이 어려워도 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해 더 나은 기술 개발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은 당연한 투자”라면서 “특히 화장품은 소비재로서 트렌드에 민감하기에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매운라면과 나초가 만났다… GS25 ‘유어스 틴세나초’ 출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틴세라면’과 ‘넷플릭스나초’ 상품을 합쳐 만든 PB(자체 브랜드) 스낵 ‘유어스 틴세나초’를 새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편의점 주고객층인 10·20세대를 중심으로 맛과 재미를 모두 챙긴 ‘매시 업(두 가지 이상의 콘텐츠를 융합해 새로 만든 것)’ 제품이 인기인 점에 착안, 1년여간 틴세라면 제조사인 팔도와 넷플릭스나초 제조사인 델토리와 함께 상품을 개발했다.

“맥켈란 이익 곧 사회공헌… 사랑받는 이유죠”

위스키 워너 ⑦·〈끝〉

노동규 디앤피스피리츠 대표

참나무통 숙성해 풍부한 맛 일품
국내 공급한계 품귀현상 일기도
“나눔 철학 덕에 좋은 위스키 생산”



노동규 디앤피스피리츠 대표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링턴 코리아가 철수하자 디앤피스피리츠를 설립, 맥켈란 판권을 사들여 한국에서 위스키 사업을 하고 있다.

맥켈란은 프리미엄 싱글몰트 위스키업계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다투는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는데, 오랜 기간 숙성해야 하는 위스키 특성상 공급에 한계가 있어 품귀현상이 생길 정도다.

노 대표는 맥켈란의 풍부한 맛의 비결로 2개의 다른 숙성통을 사용하는 ‘더블

캐스크’를 꼽았다. 맥켈란 주력 제품은 유럽 참나무와 미국 참나무통에서 각각 숙성한 제품을 블렌딩하는 과정을 거친다.

노 대표는 “맥켈란은 호주의 한 대학 연구기관이 시행한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평가에서 글렌피크, 발베니 등을 제치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위였다”고 자부했다. 맥켈란이 이처럼 고품질로 평가받는 이유는 제조사인 에드링턴그룹(에드링턴)의 경영 철학에서 비롯한다. 에드링턴은 1961년 비영리단체인 로버트슨 트러스트(로버트슨)와 함께 설립됐는데, 로버트슨이 에드링턴을 지배하는 구조다. 맥켈란의 판매 수익은 이 단체로 모두 편입돼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쓰인다.

노 대표는 “맥켈란은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곳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의 좋은 롤모델”이라며 “이익이 곧 사회공헌으로 이어져, 임직원 개개인도 양질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C-커머스 초저가 공습 정보에 다이소 ‘배송·매장확대’ 총력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태무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의 초저가 공습이 거세자, 군일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다이소는 올해 물류망, 매장 확대, 상품력을 앞세워 C커머스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최근 대량주문 서비스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량주문은 다이소의 온라인쇼핑몰 ‘다이소몰’에서 단일

대량 주문 서비스·점포수 늘리고
뷰티·패션까지 상품력 강화 몰두

상품을 30만 원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익일배송 론칭과 함께 선보였다.

다이소는 대량주문 요청이 오면 라보, 다마스, 1톤 트럭을 활용해 대면 배송한다. 그간 다이소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대량주문을 테스트해왔는데, 기업 등 수요가 있고 배송 능력도 개선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안성 물류센터를 임대해 온라인물 주문수요를 대응하는 한편 용인, 부산 물류센터까지 총

3개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35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세종허브센터를 짓고, 2025년 경기도 양주허브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다이소는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이소의 점포 수는 지난해 1519곳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다. 특히 직영점 출점이 늘고 있다. 지난해 다이소 직영점 수는 1022개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직영점은 가맹점보다 매장 규모가 커 상품 구색이 다양하고 향후 온라인 물류 거점이 될 수 있다. CJ올리브영의 쿡커머스 ‘오늘드림’이 대표적이다.

다이소는 뷰티·패션까지 상품력을 키우고 있다. 작년 기초·색조 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약 85% 늘었다. VT코스메틱이 다이소 전용으로 만든 ‘리들샷 페이스 부스팅 퍼스트 앰플’(3000원)은 품절 대란을 이어가고 있다. 다이소는 최근 아미코스메틱의 데일리 더마 브랜드 BRTC 클렌징 용품, 이넬화장품의 입큰앤드(IPKN&) 등도 출시했다. 다이소가 최근 부쩍 패션과 화장품 등에 힘을 주는 이유는 알리, 태무 등 C커머스의 국내 공략이 심상치 않아서다.

유승호 기자 peter@

롯데마트·슈퍼 ‘공구하트 상품’ 효자 노릇 톡톡

100여개 중 70개 상품 판매량 1위

롯데마트·슈퍼가 창립 기념 ‘더 큰 세일’을 맞아 선보인 ‘공구하트’ 상품이 매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공구하트는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롯데마트와 슈퍼가 파트너사와 협업해 단독으로 기획한 가성비 브랜드다.

기존 인기 상품의 용량을 대폭 늘리거나 가격을 20% 이상 낮췄다.

10일 롯데마트와 슈퍼에 따르면, 양사가 창립기념 세일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2일간 공구하트 상품을 판매 중인데, 100여개 상품 가운데 70개가 해당 상품군에서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유승호 기자 peter@

미워도 테슬라… 서학개미 이달들어 1.3억弗 폭풍매수

국내 투자자 순매수 종목 1위

테슬라 주가하락이 이어지자 서학개미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여기고 ‘테슬라 러브콜’을 재개하고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나타났다. 서학개미는 이 기간 테슬라를 1억3313만 달러(약 1803억 원)어치 사들였다. 지난달 마지막 주(5535만 달러어치, 약 749억 원)에 이어 이달 초에도 테슬라가 순매수 1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반면 연초 테슬라를 밀어내고 서학개미의 사랑을 받은 엔비디아는 순매수 상위권에서 밀려났다. 지난달 마지막 주 순매수 규모 2256만 달러(약 305억 원)로 상위 5위로 내려앉았고, 이달 들어서는 4204만 달러어치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테슬라는 8일과 9일 각각 4.90%, 2.25% 오르며 176.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주가하락에 저가매수 기회 판단

3월 말부터 최대 순매수 우뚝

머스크 로보택시 소식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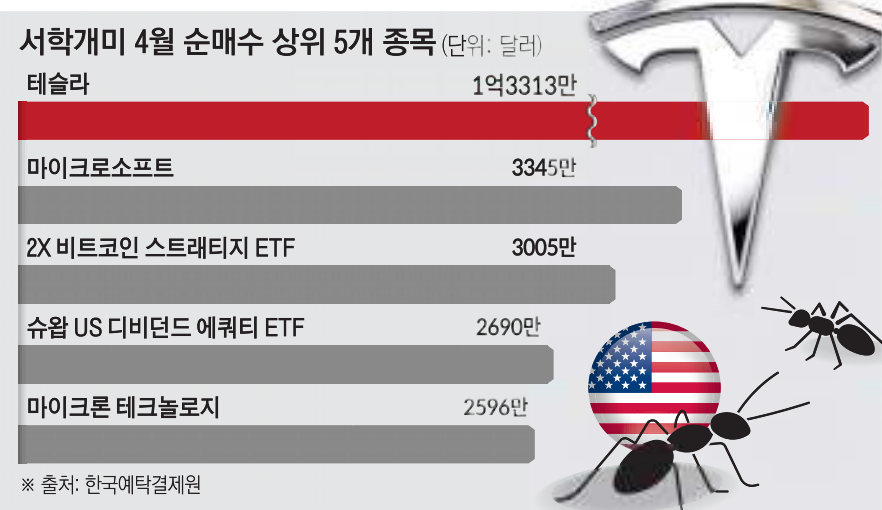
일각선 상용화 가능성에 의문

AI사업 성과 지지부진 지적도

가 올해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이달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캐시우드아크인베스트먼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2000달러로 제시했다. 우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의 잠재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크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 중이다.

다만, 우려 섞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로보택시의 경우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 개발에 이뤘는지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구글 자회사 웨이모와 제너럴모



터스(GM) 자회사 크루즈는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지만, 잇단 사고로 두달 만에 운행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인공지능(AI) 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근 월 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3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30억 달러, 엔트로픽이 아마존으로부터 60억 달러 투자받은 상황

에서 후발주자인 xAI가 경쟁에서 승리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테슬라가 처한 녹록지 않은 상황을 타파할 새 먹거리로 로보택시가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와 중국 경쟁업체들의 추격에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량은 4년 만에 감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 중국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분기 10.5%에서 4분기 6.7%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 리스크에 휩싸인 점도 부담 요소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공언하고 나섰다. 이런 겁악재에 테슬라 주가는 연초 이후 30% 넘게 빠졌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바닥 밸류는 전기차 판매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지,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 또는 AI 업체로 볼 것인지에 달라질 수 있다”며 “최근 완전자율주행(FSD) 영상을 보면 도로 위 비닐봉지까지 포착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AI 도입으로 로봇 성능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율주행과 로봇은 물리 세계의 AI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AI 열풍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로봇에서도 AI 기술이 실행돼야 한다”며 “자율주행의 발전 없이는 현재의 AI 주식에 대한 거품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 부실뇌관 될라… 은행권에 자체점검 주문

최근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배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자체점검을 주문했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핀셋조사에 착수,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 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은행의 대출 취급 건수가 많아 전수 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샘플링(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 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 담보 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

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체크리스트를 보내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을 담보로 취급한 기업 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 부동산 담보 신규 취득건에 대해 대출 실행 시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달까지 점검결과 제출”

은행권 “내부통제 작동여부 확인”

회수 가능성 낮은 대출에 조치

점검 결과 담보 대출 회수 가능성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계속 거래를 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지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는 상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면 연체가 되고 마지막에는 담보권을 실행해서 채권 회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자체 조사에 돌입한 상태고 내달까지 당국에 유사 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안양지역 국민은행 모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 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

대구 모지점과 용인 모지점에서도 잇따라 배임 사고가 확인됐다. 대구 지점

의 한 직원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담대 등 총 111억 3800만 원가량의 가계대출에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용인 지점에서는 동탄 한 상가 분양자 대상에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272억 원 수준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에서는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김병근 기자 nova@

한남 5구역 등 6곳 건축심의 통과… 4350가구 공급

서울 서빙고역과 문래역, 흑석역 인근에 총 43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중미역과 서울역 주변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관광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10일 서울시는 제8회 건축위원회에서 ‘한남 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남 5구역 외에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 △문래동 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흑석 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서울역지단구역 서울역북부 특계 신축사업 등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총 4350가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682호실·호텔·공장, 판매시설이 건립된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있는 한남 5구역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56개 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 분양 2202가구),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 동(146호), 근린생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흑석 9 등

오피스텔 682호실·호텔·공장 건립

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공공성 확보·창의적 디자인 구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해 어디서든 한강과 남산을 즐길 수 있는 통경가로 공간을 계획했다. 한강수변 지역은 낮고 배면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남산과 어우러지는 높이계획을 수립했다.

지하철 9호선 중미역 인근인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은 2개 동,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로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건축위원회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층 타워동과 저층 테라스동으로 계획했다. 대지 동쪽과 중앙에 휴게광장을 조성해 인접 주민,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에 계획된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지식산업센터 지원 시설로써 입주자와 인근 주민들이 건물 내로 진입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문래동 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은 3개 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18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건물의 전면 외관을 프레임 형태로 구성하고 부분적 강조색 사용으로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

흑석 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7층~지상 25층 20개 동 1540가구(공공 267가구, 분양 127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단지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와 다수의 통경축으로 보행·시각적 연속성이 드러나고 인근 공원과 연계할 수 있게 배치된다.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은 2개 동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399호실과 근린생활시설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 서울시

을 건립한다. 이곳은 2021년 9월 조건부 의결 후 올해 개정된 오피스텔 신축기준을 적용해 발코니를 제공한다.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은 5개 동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137호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을 조성한다. 건축위원회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타워부에서부터 차츰 낮아지는 새로운 건축물 조형과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또 모든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동선 유도로 서울역 주변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입체적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해 도시철도로 단절된 동·서 구간을 연결, 서소문역사공원까지 자연친화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경관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태영건설〉

태영이 쏜 ‘워크아웃 개편’… ‘건설사 위기설’ 잠재울까

금융위,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부실기업 ‘쑥’… 폐업 2년새 2배↑
보증기관 지원한도 확대 가능성
‘워크아웃’ 태영도 보증규모 커
6월부터 일부 부실에도 제재 면책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실기업들이 늘어나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6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다가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에 명시된 ‘채권금융기관’에 주금공과 HUG,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융자, 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출처 : 금융위원회	
개정 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상 면책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금융기관’에 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 내용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융자·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를 추가
관련 법조항	기촉법 제34조,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다.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6월 공포 예정.

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영향을 미쳤다.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은 KDB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일반은행 등에 한정됐다. 그러나 태영건설 사례를 비롯해 그간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기관, 공제조합 등도 해왔다. 금융위는 법 해석을 통해 주금공, HUG도 면책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향후 워크아웃 기업 보증지원 과정에서 문제 발생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진행됐던 건보다 보증기관들의 보증 규모가 크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금융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영건설 사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지금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하는 모든 건설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태영건설과 관련해 건설공제조합, 주금공 등 보증기관의 4000억 원 규모 신규 보증 지원이 결정된 상황이다. 앞서 2월에 열린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필요하면 보증지원액을 더 늘리겠다’는 단서조항 추가에 따라 보증 한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금공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PF 특례보증 출시도 앞두고 있다. 건설사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검증을 통해 심사를 거치고, 채무 재조정, 추가보증 등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총 150곳의 종합 공사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곳, 2022년 7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방사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이 제한적이고,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자생력이 없는 건설사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하영 기자 ha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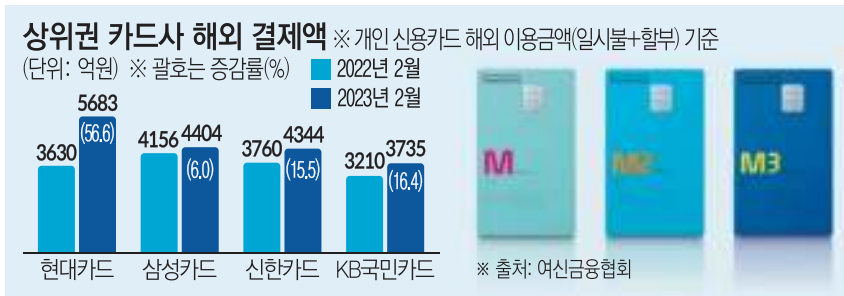
‘순위싸움’ 치열한 카드사… 해외결제시장서 갈린다

현대 2월 56.6% 증가한 5683억
해외여행 늘어 결제 이용도 급증
실적부진 만회 상품 잇따라 내놔

상위권 카드사들의 순위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결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해외카드 결제 이용량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카드사들이 각각의 특징을 내세워 해외신용판매 수익을 타깃으로 한 서비스와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배경이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월 기준 현대카드의 개인 해외 신용판매 금액은 5683억 원으로 카드사 중 가장 높은 판매고를 보였다. 전년 동월(3630억 원) 대비 56.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는 440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4156억 원)보다 6.0% 증가했다. 신한카드(4344억 원), KB국민카드(3735억 원)는 각각 15.5%, 16.4% 증가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며 온·오프라인 신용판매 실적도 늘었다”며 “애플페이도 입과 상업자표신용카드(PLCC) 등 해외여행 특화 카드가 높은 해외 신용판매의 성장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월 기준 해외로 떠난 외국인 해외관광객은 251만2109명으로 전년 동월(172만4880명) 대비 45.6%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의 96% 수준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결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결제, 출금 수수료 무료 등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해외특화 카드를 잇달아 출시하는 등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신한카드는 해외결제 부문에 집중하며 업계 순위 1위 굳히기에 나선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해외에서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신한카드 글로벌스’를 출시했다. 이어 올해 2월 신한은행과 협업해 ‘신한카드 쏠트 래블 체크’를 내놔다. 이상품은 출시한 달 만에 발급 30만 장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iD글로벌카드’를 선보인 삼성카드는 2021년, 2022년 두 해 연속 해외 신용판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 현대카드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올해는 삼성페이를 무기로 1위 탈환을 노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iD글

로벌카드는 해외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해외 사용금액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해외결제 시장을 통해 반등 노린다. KB국민카드는 전일 해외결제에 특화된 ‘KB국민 위시 트래블 신용카드’를 내놔다. 이상품은 전일 실적 조건과 한도 제한 없는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전일 실적 조건과 한도 제한 없는 해외 이용 환율 우대 100%(미 달러 기준), 전 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연 2회, 전일 국내 이용 실적 30만원 이상 시) 등 혜택을 제공한다. 22일 새로운 해외결제 특화 체크카드인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출시도 앞두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결제 수단을 많이 쓰게끔 대동소이한 상품보다는 차별성 있는 상품 출시가 필요하다”며 “최근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jsw@

“국민銀 청년 IT인재 양성 ‘드림웨이브’ 5기 지원을”

13일까지 280명 모집… 채용 우대

KB국민은행은 13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 ‘KB 잇츠 유어라이프(IT’s Your Life)’ 5기 참가자 28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KB IT’s Your Life’는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드림웨이브(Dream Wave) 2030’의 진로 분야 프로그램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향상과 취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과정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교육 인원을 기존 연간 150명에서 2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국내 연수 및 힐링캠프 △전문가 특강 △취업 준비패키지 지원 등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다. 선발된 인원은 약 6개월간 자바(JAVA) 기반 알고리즘, 구조적 쿼리 언어(SQL), 데이터베이스(DB) 활용, 팀 프로젝트 등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 IT 교육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참가자들이 교육과정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비를 지원하고 △1대 1 취업 컨설팅 및 취업 특강 △현직자 멘토의 취업 멘토링 △코딩 테스트 대비반 운영 △해커톤 경진대회 등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B굿잡 취업박람회’와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도 지원한다.

교육 과정 종료 후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참가자는 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주역인 청년층에 대한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 관리 부실’ 한투·OK저축銀 징계

금감원, OK저축銀 과태료 5.2억
한투저축銀 2400만원·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이 고객자금 횡령과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사유로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

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적발됐다.

OK저축은행은 퇴직자에 대해 지체 없는 개인신용정보 접근 권한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이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 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100만 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총당금 42억7500만 원을 덜 쌓았다. 준법감사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점점 멀어지는 금리인하…美장기채 ETF 개미 울상

올들어 8~18%대 하락

조기 금리인하론에 수요 물리자
운용사들 美장기채 펀드 선보여
예상 밖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
수익 부진… 레버리지 낙폭 키워
커버드콜 상품통해 손실 줄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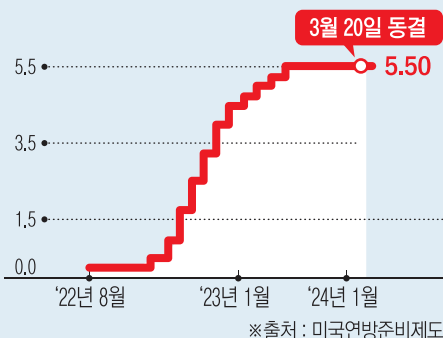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매파적 발언에 시장 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개미들이 울상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한 미국 장기채 관련 ETF는 올해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 H) -13.82%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9.49% △SOL 미국30년국채액티브(H) -8.17% △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 -8.01% 등 순으로 하락했다.

미국 장기채 ETF 하락 상위 종목
(단위 : %)

종목명	수익률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18.19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 H)	-13.82
KBSTAR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합성 H)	-11.57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9.49
SOL 미국30년국채액티브(H)	-8.17
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	-8.01

※출처 : 한국거래소

미국 기준금리 (단위 : %)



금리 인하에 기대를 걸고 미국 장기채 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지연됐지만, 연준이 9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서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8일 출시한 KB자산운용의 'KB미국 장기채권 10년 플러스 펀드'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가 대표적이다.

미국 장기채 ETF 중에서도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SOL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는 8.17% 하락했지만, SOL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합성) ETF는 1.19% 하락했다. 커버드콜이란 기초자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해당 기초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을 팔 때 받은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손실 폭을 줄일 수 있다”며 “하락장에 대응하며 금리 인하 시기까지 견뎌야 한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같은 기간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18.19%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다. 엔화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KBSTAR미국30년국채엔화노출(합성 H) ETF는환차익 실패까지 겹치며 하락세가 -11.57%에 달한다.

미국 장기채 ETF는 올해 금리가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에 투자수요가 빗발쳤다. 고금리 종결론이 커질 때가마지막 채권 저점 매수 시점이라는 시각이 많아서

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금리가 내리기 전에 채권이나 관련 상품을 사둔 뒤 금리가 인하될 때 이를 팔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특히 장기채는 금리 인하 시기 단기채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어 투자 매력에 올라갔다. 실제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는 올해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문제는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했다

는 점이다. 당장 미국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동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월부터 연내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과 상반된다. 심지어 '월가의 황제'로 알려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미국 금리가8%대까지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줄자 미국 국채금리는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여전히 연내

원가절감·투자 늘려 실적반등 발판… 액면분할 카드도 꺼냈다

기업탐구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지난해 10만 원에서 시작해 7월 장중 150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고평가 논란 등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매수세를 끌어모으면서 이차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코스닥 전체 랠리를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에코프로 주가는 50만 원대를 기록 중이다. 전기차 시장 불황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원가절감과 조직문화 개선, 신규투자를 통해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액면분할을 통해 투자자들

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황제주서 주가40만 원대로 = 지난해 초에코프로의 시초가는10만3000원이었다. 그러나 7월 26일에는 장중 153만9000원을 기록했다. 연초 대비 1394.1% 오르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100만 원대를 오가며 '황제주' 반열에 올랐던 에코프로는 지난해 9월 11일 98만 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며 올해 1월 25일 종가 49만5000원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주가를 기록 중이다. 실적 저하와 전방산업인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의문이제기됐기 때문이다. 원재료 가격 역시 약재로 작용하면서 에코프로 매출액은 7조 25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7% 늘었

주가 지난해 고점比 3분의 1토막
실적 2분기 저점 찍고 반등 점쳐
액분 후 투자자 접근성 확대 기대

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1.9%, 61.2% 감소한 6132억 원, 2206억 원에 그쳤다.

◇원가절감·신규 투자로 반등 = 향후 에코프로 실적 역시 전방산업과 원자재 가격에 달렸다. 양극재 사업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두고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방 시장의 비수기 영향에 따른 재고조정 및 부정적 래강효과가 반영돼 1분기 저조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최근 리튬 가격 상승 추이

를 감안하면 평가는 2분기 저점 확인 후 3분기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배터리 시장 불황 극복을 위해 에코프로는 원가 절감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2년간 원가 30% 절감을 목표로 원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신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에코프로는 올해 포항캠퍼스를 중심으로 전구체 공장 증설 6900억 원, 양극재, 수산화리튬 공장 증설에 각각 3200억 원, 1600억 원, 산업용 가스 생산에 100억 원 등 국내에 약 1조18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한다.

◇액면분할 이후 매수세 끝까 = 에코프로는 액면분할로 주가 반등을 노리고 있다. 주식 액면분할을 통해 투자자 접근성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에코

프로는 지난달 주식 액면가를 5분의 1로 나누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는 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고, 25일부터 종가의 5분의 1가적인 거래가 10만3400원으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통상 액면분할은 유동 주식 수를 늘리고,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호재로 인식된다. 거래재개 이후 에코프로 주가 추이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2월 액면분할 발표 당시 “자본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을 통해 주가 가치를 제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대손충당금’ 회초리 먼저 맞은 증권가… 실적 청신호

금리인하로 투자환경 개선되면
채권 운용·IB 부문 수익성 기대
PF 리스크 추가충격 가능성 낮아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증권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번지고 있다. 작년 말 고금리에 대비해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선제적 유동성 조처를 해둔 덕이다. 하반기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해 투자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채권과 프랍 운용 평가손익과 부동산 사업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가 전망치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 5곳(한국·NH·미래·삼성·키움)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650억 원으로 직전 4분기(-2957억 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8740억 원보다도 약 10% 늘어난 수준이다. 1년 전(1조2661억 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4분기 보수적 충당금을 쌓으면서 실적이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상했던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

다. 증권사들은 1년 전보다 평균 3~5배 넘게 늘어난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실적은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4분기 부진했던 증시 거래대금은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20조 원대를 웃돌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화증권 거래대금도 다시 증가하며 수익을 끌어 올렸다. 5개 증권사의 1분기 합산 위탁매매 수익은 8686억 원으로 직전 4분기보다 약 50%, 1년 전보다는 약 2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급락은 없었지만, 채권금리가 고금리 박스권 수준을 등락하면서 채권 운용 및 평가손실 요소도 크게 완화했다. 증권사 합산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은 4833억 원으로 4분기보다 흑자 전환했다. 기업금융(IB) 수익도 직전 분기와 전년 대비 모두 개선세를 보였다. 증권사 1분기 합산 IB 수익은 247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올해 1~2월 회사채 발행

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해 채권발행시장(DCM) 부문이 호조를 보였고, 기업공개(IPO) 부문 실적 또한 개선된 영향이다.

금리인하 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부동산 관련 우려는 지속하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지난해 충당금과 감액손실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충당금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커버리지 내 부동산 PF와 해외부동산 감액손실이 추가로 반영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원이 줄어든 점은 부정적 이슈다. 증권사는 은행권과 달리 배상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은행의 ELS 판매 축소 조치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수익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조치가 증권사의 ELS 헷지 손실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어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희민 기자 hihello@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가 '스노우볼랩'에 1호로 가입하고 있다. 9일 출시된 하나증권 스노우볼랩은 미국 주식시장 분할 투자를 통해 변동성은 낮추고 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사진제공 하나증권

하나證 ‘스노우볼랩’… 안정적 장기 복리 투자 효과

강성목 대표 1호 가입 ‘상생금융’

하나증권은 미국 시장 고배당 투자상품과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투자로 안정적인 장기 복리 투자 효과를 추구하는 ‘스노우볼랩’을 신규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노우볼랩은 미국 주식시장 분할 투자를 통해 변동성은 낮추고 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에 70~80%,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20~30% 비중으로 투자한다.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과 추가 적립금 재투자로 안정적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증권은 스노우볼랩 판매수익 일부를 저출산 문제 극복과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부할 예정이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가 스노우볼랩에 1호로 가입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함선경 매니저

정혜리 대표

이호찬 팀장

세종시 조치원을 '리리' 팀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소상공인분들께 간판, 실내 보수 지원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명 :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4월 12일(금)

신청방법 : 하나 파워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anapoweron.com>

신청하러 가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건설사 회사채 올해 2조 만기…중견·중소사 물량상환 우려

상위 10위권 잔액이 9543억
SK에코플랜트 3540억 최대
“전략적 투자…관리 가능 범위”

문제는 1조 웃도는 중견·중소사
유동성 떨어지고 채권발행 애로
신용등급·전망 하향 가능성도

국내 건설사들이 올해 연말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가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조 원가량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사가 발행한 채권 잔액이란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건설업종 회사채(사모 포함)는 총 225건으로, 발행 규모는 1조9918억 원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건설사 잔액은 9543억 원이다.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SK에코플랜트로, 3540억 원이 만기된다. SK에코플랜트는 사모채는 다음 달 500억 원, 7월 2000억 원, 8월 680억 원, 9월 36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SK에코플랜트의 규모를 고려할 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차입금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DB금융투자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SK에코플랜트는 연결 자회사의 차입금 편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 말 연결 기준 순차입금이 4조5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영업현금 흐름 대비 차입금 규모가 과중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전사 사업계획에 맞춰 전략적으로 투자한 건으로 차입 규모는 관리 가능한 범위”라며 “환경·에너지 사업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재무건전성 개선 및 내적 성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6월, GS건설은 이달 각각 2000억 원 만기가 돌아온다. 현대건설은 6월(800억 원), 롯데건설은 9월(500억 원)과 10월(250억 원), 대우건설은 4월(139억 원)과 7월(200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은 10월(14억 원) 만기를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없다. 대형 건설사는 현금 유동성이 뛰어나고

주요 건설사 연내 만기 회사채 ※ 출처: 금융투자협회				
발행인	종목명	발행형태	만기일	발행잔액(원)
현대건설	현대건설305-1	전자증권	6월 29일	800억
GS건설	GS건설139	전자증권	4월 16일	2000억
DL이앤씨	DL이앤씨1-1	전자증권	6월 14일	2000억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174-2	전자증권	8월 23일	680억
	·SK에코플랜트171-1(녹)(사모)	전자증권	5월 13일	500억
	·SK에코플랜트168-2(지)	전자증권	7월 29일	2000억
HLD&I 한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140(사모)	전자증권	6월 21일	560억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130(PCBO사모/월)	전자증권	11월 29일	500억

채권 역시 우량 채권으로 분류돼 차환 발행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작다. 10대 건설사 중 올해 만기 도래 채권 잔액이 가장 많은 SK에코플랜트는 보유한 현금을 통해 상환하거나 차환 발행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1분기 2000억 원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3440억 원의 주문을 받았고, 현대건설도 목표액(1600억 원)의 4배가 넘는 6850억 원을 모았다. 포스코이앤씨가 900억 원을 발행하기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는 275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SK에코플랜트 회사채 수요예측에도 목표 모집금액(1300억 원)의 5배

수준인 7000억 원이 몰렸다. 문제는 중견·중소건설사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업 회사채 가운데 1조 375억 원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밖 건설사 몫이다. 현재 건설업종 회사채 잔액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중견·중소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보다 현금 유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채권발행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HL D&I 한라는 2월 700억 원 회사채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나 전량 미매각됐고 이후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했다. HL D&I 한라는 10위권 밖 건설사 중 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규모가 가장 많은

곳으로 잔액은 총 1632억 원이다. 이달 중 330억 원이 만기를 맞고 이어 5월 70억 원, 6월 560억 원, 8월 30억 원, 10월 100억 원, 11월 542억 원의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HL D&I 한라 관계자는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중 일부는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일부는 차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채권연구센터장은 “몇몇 사례만 볼 때는 건설업 회사채 발행이 잘되는 것 같지만, 발행 여건이 매우 다르다”며 “일부 건설사는 채권 수요예측이 미매각되기도 하는 등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는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어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고 회사채 발행도 쉽지 않다”며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P-CBO) 신용등급을 낮춰 발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je@

‘나혼산’ 시대…1인 가구 1000만 돌파 ‘소형 아파트’ 뜬다

아파트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심상찮다.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열리며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비아파트(빌라·다세대)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소형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는 올해 1월 994만3426가구에서 2월 998만1702가구로 증가했고 3월 1002만1413가구로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를 합친 995만209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전체 2400만2008가구의 41.75%에 해당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청약

1분기 60㎡이하 경쟁률 17.9대1
중소형 3배, 대형 2배 이상 기록
전용 84㎡ 국민평형 인기 넘어서
건설사, 소형 평형 특화설계 적용

을 받은 전국 소형 아파트(60㎡ 이하) 경쟁률은 17.94대 1로 나타났다. 인기 평형으로 꼽히는 중 소형(60~85㎡ 이하)의 5.08대 1보다 3배 이상, 대형(85㎡ 초과) 8.27대 1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도 소형 아파트 선호를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의 주요 대

상이었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누계 피해 건수는 1만4001건이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4682건, 오피스텔 3113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5.67%를 차지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최근 전용 59㎡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평형으로 불렸던 전용 84㎡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요즘 공급되는 소형 평형은 건설사의 설계 기술의 상향으로 각종 특화설계가 적용된 만큼 공간 활용도가 높아 넉넉한 공간을 누릴 수 있어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이 단지는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사진제공 롯데건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건설사들도 소형 평형 일반 분양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먼저 롯데건설은 이달 경기도 광명 9R 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우건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 총 1502가구(일반분양 1273가구) 규모의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

할 예정이다.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지에 총 1746가구(일반분양 1207가구) 규모의 ‘문화자이SKVIEW’를 공급한다. GS건설과 한화건설 부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제’를 분양하고 있다. 총 3214가구 중 11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한진리 기자 truth@

한화, 대전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유성 나노·국가산단 후보지 수혜
총 818가구 중 568가구 일반분양

한화건설부문은대전광역시서구도마동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이하 도마·변동지구)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의 선착순 분양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가구로 전용면적 타입별 △59㎡ A 209가구 △59㎡ B 111가구 △74㎡ A 65가구 △74㎡ B 92가구 △84㎡ 86가구 △101㎡ 5가구로 구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여기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되면서 주목 받고 있다. 대전시는 이곳에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정지에서 7~8km 떨어진 도마 포레나해모로도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도마네거리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해당 역이 신설되면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역세권 단지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동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전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 서구에 분양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 투시도. 사진제공 한화 건설부문

용 74㎡ 이상 중대형은 4베어로 구성된다. 동간 거리는 최대 약 64m로 유지하고 조경공간도 넓게 확보될 전망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 일원에 마련돼 있다. 현재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가구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한진리 기자 truth@

서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궁금하다면…

市, 16일 서소문청사서 설명회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의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변경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이달 16일 오후 2시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사,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를 통해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진리 기자 truth@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 사례를 공유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땐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추진 요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올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진리 기자 truth@

보증금 준다고 속여 퇴거시킨 임대인… 대법 “사기죄 아냐”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과 해지
이체한도 속이고 일부만 송금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피소
“재산상의 이익 처분 없었고
점유권만 받아”… 파기 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 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집주인이 받은 것만으

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A 씨는 2018년 3월 B 씨와 임대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한 차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가 2020년 8월 전세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 씨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A 씨는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 원”이라며 나머지 7000만 원은 주말이 지

난 월요일에 송금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임차인을 언급하며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A 씨의 카드는 이체한도 제한이 없었고, 당시 신규 임차인에게 1억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B 씨에게 합계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송금했지만,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돈을 쓰면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보증금 미반환을 포함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사기, 주식 단기 투자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오피스텔 점유권 이전이 사기죄의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전액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퇴거해 새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함으로써 점유권을 편취했다”며 “오피스텔의 점유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오피스텔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었다”며 “기망행위로 권리를 상실한 것이므로 이 같은 점유 이전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 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

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다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A 씨 소유일 뿐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권을 독자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김이현 기자 spes@

“집단 유급만은 피하자” 의대 속속 개강했지만…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이달 수업을 모두 재개한다. 다만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에 처할 수 있어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예과 2학년~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은 16개교다. 전체 의대 40%가 수업을 재개한 셈이다.

나머지 24개 의대도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정이 정해진 의대는 23개교다. 오는 15일에는 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 등 16개교, 22일에는 강원대·아주대 등 5개교, 29일에는 인하대·중앙대·가수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순천향대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한 배경은 더 이상 학사 일정을 미루면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이 크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들은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집단유급이 현실화 되면 의대 증원이 반영된 이후 특정 학년에 몰릴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가에 유급 인원까지 합쳐져 내년에 전국 의대에서 8000명이 넘는 학생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진행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1학년이 집단유급된다면 3058명에 내년 정원 5058명을 더한 8116명이 6년간 그 여건에서 교육받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전날까지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8개교로 전날보다 1개교 더 늘었다. 누적 휴학생도 1만377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8793명)의 55.2%에 달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은 “행정적 수업 재개와 학생들의 실질적 수업 수강은 다르다”며 “학생들은 굳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탓에 대학들은 온라인 등 혼합으로 수업을 진행 중인 곳이 여럿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동영상 강의를 틀고, 강의 자료를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임상실습은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는 “본과 3~4학년은 대부분 실습 수업이 중단 또는 연기됐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과거와 같은 전통적 수업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수강)한다는 것만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상황은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현재 최선의 과제는 집단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업이 재개돼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9일 수업이 재개된 서울 한 의과대학 자습실에서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40개 의대 이달 수업 재개
집단유급뎀 내년 8000명 수감
수업 복귀 여부는 알수 없어
온라인·동영상 강의 등 활용



상춘객 경복궁 니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궁 관람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K콘텐츠 지나치게 자극·선정적… 소재 다변화 필요”

해외에서 바라본 한류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자극적·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제나 소재적인 측면에서 K콘텐츠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K콘텐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이 24.9%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획일적이고 식상’,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요인이 각각 22%, 21.1%를 차지했다.

한국문화콘텐츠가 마음에 든다고 답변한 비율(호감도)은 68.8%로 지난해(72.5%)보다 3.7%포인트(p) 하락했다. 영화, 드라마, 예능, 음악,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별로 호감도가 작년보다 3.3~0.6%p 하락한 가운데, 뷰티만 2.1%p 상승했다.

가장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는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 한국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선정됐다. 이어 ‘더 글로리’, ‘부산행’,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발레리나’, ‘길복순’, ‘범죄

“복수극 잔혹하게 다뤄” 평가
호감도 지난해보다 3.7%p ↓
“비판하더라도 윤리 준수해야”

도시?’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해외에서 주목받는 K콘텐츠의 목록을 살펴보면, 주로 ‘경쟁 사회’, ‘빈부 격차’, ‘학교 폭력’, ‘범죄’ 등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거나 불합리성을 풍자하는 콘텐츠들이 많다.

브라질의 영화평론가 일레인 게리니는 책 ‘2024 K-콘텐츠: 한류를 읽는 안과 밖의 시선’에서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은 잔혹한 세련미가 가미된 복수 서사를 다루는 데 능숙하다”라며 “적어도 한국식 복수 레퍼토리를 사랑하는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개인들이 얼마나 정의를 갈망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저자의 설명처럼 ‘한국식 복수 레퍼토리’가 해외 관객들의 공감을 얻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무분별하게 나열된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한다. 특히 학교 폭력을 다룬 ‘더 글로리’는 피해 학생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

게 묘사해 국내에서도 논쟁이 된 바 있다.

이지혜 영화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문제부 조사 결과는 해외 한류 실태조사 수치이지만, 국내 소비자들 또한 해외 소비자와 다름없이 비슷한 항목에서 같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 ‘푸바오’에 한국인들이 열광한 이유는 ‘무해함’ 때문이었다”라며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문화 분야에서 ‘레트로’가 유행한 이유도 현재의 자극적 콘텐츠에서 벗어나 과거 콘텐츠에서 순수함과 무해함을 찾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콘텐츠 곳곳에 자리잡은 ‘상업적’이라는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콘텐츠를 공식적 문화로 치부하고 문화의 개성과 고유성을 희석하는 큰 저해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정적 요인이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판하더라도 재현의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문화적 다양성을 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송석주 기자 ssp@

유보통합 교원 양성…“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

교육계, 교원 분리 양성에 반대
기존 보육교사는 학과 제한없이
영유아교육과로 일원화 주장

지난 30여년간 유보통합의 최대 쟁점
이었던 교원자격 기준과 관련, 통합 영유
아교사 자격을 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
통일해 신규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
장이 유아교육계에서 나왔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
육정책포럼(369호)’에 개제된 ‘유보통
합에 따른 영유아 교원정책 쟁점과 교원
자격 강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부교수는 “4년
제 영유아교육과 단일학과로 상향 통일
하는 게 유보통합 신규교사 양성 방향
성”이라고 밝혔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개편될 교
육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사
와 유아교사를 구분해 양성하는 것은 적
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유치원교사는 전문대학이나 대학
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반면 어
린이집 보육교사는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일
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얻을 수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어린이들과 악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다.

김 교수는 “유치원교사는 연령별 구분
인 유아를 표시과목으로 보고 유아교육
과를 기준으로 양성하고 있고, 보육교사
는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51학점 이상
을 취득하면 졸업학교와 학과에 관련 없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
다”며 “이에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통
일해 1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
학점과 교과목을 영유아 교육에 맞춰 새
롭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교원자격을 1개로 통일하며 표시
과목제, 초·중·고교원 자격과의 계열성,

실습학기제 도입과 같은 실습과목의 강
화 등을 고려해 4년제 단일학과로 통일
해 신규교사 양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유보통합을 통한 교원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1
대 9 이하로 줄여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복수담임제 등도 검토돼야 한
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영유아 교원이 교육과정교
사, 방과후과정교사, 교과전담교사에 모
두 배치돼 교원에 의한 질 높은 교육을 펼
쳐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향의 신규 양성체제를 통해 영유
아를 위한 우수 교원을 양성하고 확보해
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 교수는 영유아교육과 정원
도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
재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 것을 감
안해 전국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의
정원을 파악한 후 영유아교원이 더 필요하
다면 추가적인 교수채용으로 적정한 대학
의 영유아교육과 정원을 증원하는 것도 검
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교원
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존
의 유아교육과 평가는 유보하거나 정원 감축
없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직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
사 중 자격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직 교사 자격 전환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되, 영유아교사, 유치원교
사, 보육교사의 3개 체제로 현직교사 자
격을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기존의 교사 중에서 희망하
는 교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기준과
연수이수 여부를 고려해 통합영유아교
사 자격을 부여하고, 유치원교사와 보육
교사 중에서 자격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울과기대 연구소장이 아들 재임용 심사 관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
터장을 맡은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
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
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한 연구소 센
터장인 A 교수는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
들의 재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하고 재임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인 서울과기대에서 소속 교수
는 공직자 신분으로, 해당 사안은 이해충
돌방지법에 위배된다. 현행법상 공직자
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도 발표
했다. 교원 1명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354만원 상당의 물품구매 증빙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교원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공사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중
사용하지 않은 법정경비 170만 원은 감
액·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도 적발
돼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
려졌다.

지난해 충남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서는 각종 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명절 휴가비를 비롯해
원로교사 수당과 담임수당, 교통비 등
2512만 원이 잘못 지급됐거나 부적정하
게 지급된 사례로, 교육부는 적발 건에
대해 전액 회수 조치했다. 여기에 과지급
된 미시공 공사비와 안전관리비, 미중빙
비용까지 포함해 총 7216만 원을 도교육
청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교육부는 밝
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성폭력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교육부, 학내 담당자 실무연수

교육부가 대학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성희롱 사안에 대응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올해부터 실무연
수를 개편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대학
420개교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
의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권

역별 성장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
혔다.

권역별 성장훈련은 지역별 대학의 고
참 경력자를 중심으로 대학 담당자들이
사안 처리 경험을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
는 교육 방식이다. 성장훈련은 전국 420
여 개 대학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19일

부터 5월 23일까지 3회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한다.

성장훈련은 사안처리 관련 고충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킹과 문서 작성, 운영규
정을 보완하는 역량강화 훈련, 신중 성범
죄 유형을 교육받는 기능강화 성장훈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경력 2년 미만 신규 담당자
를 대상으로 고참 경력자 및 법률 전문가
가 참여하는 사안 처리 모의훈련도 6월
말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모의 훈련은
신고 접수부터 사건 처리 종료까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손현경 기자 son89@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의 세 번째 시리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40·50세대 맞춤 주거 가이드

‘은퇴 후 평생 살 집’

매일 밤 11시, 당신이 잠 못드는 시간, 미래를 위한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dice@11pm’의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평생 살 집”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인생 2막을 앞두고 라이프스타일의 변곡점을 맞은 40·50세대는 여생을 보낼 집을 찾고자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이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dice@11pm’은 세 번째 이야기로 노후 주거지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귀농귀촌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프리미엄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맞는 집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이투데이퍼낸씨 **BRAVO**

후기청년의 노후 준비 <dice@11pm>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후기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 시리즈 매일 밤 11시, 미래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인생의 지침서를 제공하려 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집약했습니다. ‘dice@11pm’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면 구성구석 준비된 QR코드는 독자들을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안내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부 지음 | 166쪽 | 16,000원

은-오프라인 전국서점 판매예정

귀촌부터 실버타운까지 40·50대 주거 가이드

dice@11pm

은퇴 후 평생 살 집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주식부호 10위 방시혁, ‘총수’ 지위 오르나

〈하이브 이사회 의장〉

방탄소년단·뉴진스의 하이브
국내 엔터기업 첫 자산 5조 돌파
대기업 지정 여부 내달 1일 발표
2005년 빅히트 출발, 20년 상장
시가총액 9조, 시총 순위 45위
‘빌보드 파워 100’ 18위 뽐혀

지분평가액 2조8500억 원, 국내 주식 부호 순위 10위인 방시혁〈사진〉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가 자산 5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할지 여부를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하이브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조 3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규모다. 하이브의 자산은

2021년 4조7289억 원, 2022년 4조8704억 원 등으로 5조 원 아래를 유지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 원이 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브는 2021년 이후 사업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지난해 3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면서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이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검토하고 있으며, 5월 1일경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2005년 2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출발해, 대중음악 기획·제작 등을 행하는 글로벌 콘텐츠 집단으로 성장했



다.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의 성공에 이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세븐틴, 프로미스나인, 르세라핌, 뉴진스, 엔하이픈 등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데뷔한 투어스, 아일릿, 캣츠아이 등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삼성증권은 “총참한 아티스트라 인업에 기반해 음반·음원, 공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콘텐츠, 라이선싱 매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성공을 발판 삼아 2019년 쏘스뮤직, 2020년 플레디스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2020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에도 성공했다. 현재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약 9조 원으로 시총 순위는 45위다. 2021년에는 글로벌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속한 이타카 홀딩스를 10억 45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힙합 레이블 QC 미디어 홀딩스와 라틴 음악 업체 액자일 뮤직도 사들였다.

올해 들어서도 하이브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월에는 유니버설 뮤직그룹(UMG)과 음반원 글로벌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증권가는 해외 음원 매출이 7~14%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하이브는 더 이상 K팝에만 초점을 맞춘 지리적으로 제한된 회사라고 볼 수 없다”며 방시혁 의장을 음악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빌보드 파워 100’ 18위로 뽑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사진제공 하이브

수협銀, 일본 MUFG은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Sh수협은행은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행 주요 경영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강신숙〈사진 왼쪽〉수협은행장은 8일 진행된 마크 헨더슨 MUFG은행 아시아 지역 총괄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장기간 침체된 글로벌 투자가 이제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금융투자기관들이 신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금융업의 글로벌화는 다른 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과 교류, 투자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 행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양사 간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 협력하고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마크 헨더슨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 행장은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투자은행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사진제공 Sh수협은행

LG전자, 美 대학스포츠 선수 정신건강 지원 10만달러 기부

‘라이프스 굿 코치 어워드’도 신설

LG전자가 미국 대학생 스포츠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기부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미국 대학체육협회(NCAA)의 남자 농구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기부금을 전달했다. NCAA는 미국 대학 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1100여 개 대학 선수 50만 명 이상이 소속돼 있다. LG전자는 2021년부터 NCAA와 후원 계약을 맺고 공식 기업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미국 정신과협회

(NAMI)가 지원하는 대학생 스포츠 선수들의 정신 건강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NCAA 소속 대학생 선수들은 정신 질환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고 정신 건강 상담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LG전자는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스포츠 코치들을 시상하는 ‘라이프스 굿 코치 어워드’(Life’s Good Coaches Award)를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에 코치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코치들은 각 학교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과 LG전자 제품을 받게 된다.

아울러 LG전자는 대학생 스포츠 선수



왼쪽부터 브라이언 헤인라인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최고 의료 책임자, 한나 웨슬로우ski 미국 정신과협회(NAMI) 최고홍보 책임자, 정규환 LG전자 북미지역 대표 부사장. 사진제공 LG전자

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팟캐스트도 진행한다. 정신 건강 전문가와 대학생 선수, 코치진 등을 초청해 정신 건강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정규환 LG전자 북미지역 대표 부사장은 “잠재력을 갖춘 어린 선수들이 건강한 정신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운동 경력을 쌓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동국제강 임직원이 1~9일 준법의 날 캠페인을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준법의 날’ 캠페인

임직원 공모로 준법 슬로건 제정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은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 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준법 관련 첫 캠페인인 만큼 준법 퀴즈,

준법 슬로건 만들기, 준법 가이드라인 배포 등 임직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흥미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준법 가이드라인 책자는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헛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을 담았다. 업무용 수첩에 동봉 가능한 포켓북 크기로 제작해 활용도

를 높였다.

준법 슬로건 선정은 임직원 공모 방식을 적용했다. 공모전에는 그룹사 임직원 139명이 참여해 142개 슬로건을 출품했다. 동국홀딩스는 ‘준법이 습관이 될 때 건강한 미래가 시작됩니다’, 동국제강은 ‘준법, 동국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동국씨엠은 ‘준법, 강철 같은 우리의 약속!’을 각각 공식 준법 슬로건으로 제정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신의 입자, 힉스’ 존재 예언한 피터 힉스 별세

물체에 질량 부여하는 입자
이론 제시 48년 후 CERN이 증명
201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물체에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입자의 존재를 예측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피터 힉스 영국 에든버러대 명예교수가 자택에서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에든버러대는 이날 성명에서 “그가 짧은 지병

을 앓은 후 전날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며 “그의 선구적인 연구는 수천 명의 과학자에게 동기를 부여했고, 그의 업적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과학자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29년 영국 중부 뉴캐슬에서 태어난 힉스 교수는 런던대 킹스칼리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후 1954년 같은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에든버러대 등 여러 대학에서 연구를 이어갔다. 특히 1964년 사물에 무게가 있는 것은



피터 힉스

우주를 채우고 있는 힉스입자에 의해 움직임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다양한 종류의 소립자가 발견되는 가운데 힉스입자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12년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거대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발견됐다.

힉스 교수는 이론의 정확성이 입증돼 2013년 프랑스 아양글레르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변효선 기자 hsbyun@

부음

▲공애련(고 김중건 전 법제처장 부인) 씨 별세, 김정태(재미)·현태(매시스랩 대표·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지태(하나은행 차장) 씨 모친상, 민지영(재미)·권효중·김정하(한국경제인협회 책임) 씨 시모상=1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11일 오후 2시부터 14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45분, 02-3410-3151

▲구재경 씨 별세, 김옥기 씨 남편상, 구기청(에쓰오일 홍보팀 책임매니저)·기대·인성 씨 부친상=9일, 서천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041-952-4402

▲이제희 씨 별세, 명순환·순영(매일경제신문 매경이코노미 부장대우) 씨 모친상=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2-2258-5965

▲남차남 씨 별세, 김승규·기호(전 경북매일신문 대표)·필규·종규 씨 모친상, 황태식(포항 황씨금방 대표)·서기원(포스코와이드 근무) 씨 장모상, 김향희 씨 시모상=10일, 포항국화원 장례식장 MVG실, 발인 12일 오전 8시, 054-272-4444

논현광장



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자산시장을 둘러싼 여러 환경 가운데 아마도 '경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물론 자산시장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경기전망'이란, 예상을 뛰어넘어 더 좋거나 반대로 예상을 뒤엎는 아주 나쁜 경기, 즉 경기의 탄력(모멘텀)일 것이다. 만약 1년 후의 경기가 지금 예상보다 형편없이 추락하거나 반대로 놀랍도록 좋다면 대략 지금 뭘 사야 할지는 뻔하고 투자도 정말 편해질 것이다. 경기와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라면 투자자들은 경기 수혜 폭이 큰 제조업이나 중소형주, 금융주 또는 원유와 같은 원자재를 적극 매수하고 채권 매입은 미루면 된다.

하지만 돌아쳐 보면 우리는 경제전망에 있어 종종 적지 않은 실수를 범해왔다. 가령 미국경제는 작년에 실제 2.5%

아직 강하다. 또한 대출 연체율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고 신용시장도 대체로 평온하다. 경기를 당장 크게 훼손할 만한 금융불안 요인이 적음을 뜻한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이러한 장밋빛 환경만 있는 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작년의 3.1%에서 2.9%로 낮춰 잡았는데 특히 유로존을 0.6%로 아주 낮게 봤고 독일은 0.3%로 거의 불황수준을 예상했다. 미국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수요부진을 쉽게 엿볼 수 있다.

경기 우등생인 미국도 최근 1~2년간 경기가 너무나도 좋았기에 역설적으로 이처럼 좋은 경기가 앞으로 지속될 수가 있을까의문이다. 실업률이 아직 낮지만 고용시장이 정상에서 차츰 내려오고 있

낙관·우려 교차하는 세계경제

성장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이 2022년 10월에 전망했던 이듬해(2023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1.0%에 불과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RB)가 2022년 12월에 전망했던 2023년 성장률은 이보다도 낮은 0.5%(중간값)에 불과했다. 거의 모든 기관들이 이처럼 경제전망에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경제전망은 과연 어느 정도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연준은 얼마 전 3월 통화정책회의(FOMC)에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는데 이는 석달 전 전망치(1.4%)보다 대폭 높여 잡은 수치다. 지금으로 보서는 꽤 그럴 듯한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지난 팬데믹 때 불경기와 회복기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3년 이상 호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1970년 이후 평균 67개월의 호황에 비해서는 짧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호황이 곧 마감되기에는 소비와 기업활동이

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간 가파르게 치솟았던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이 둔화 추세이고 금융기관들의 대출도 제법 큰 폭으로 꺾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경제는 각양각색, 경기의 온도차가 꽤 큰 편이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푼 데다 첨단산업의 약진, 강력한 소비 역량을 뽐내는 미국이 단연 앞서가고 있지만 이에 비해 각국의 전통 제조업과 세계교역은 약한 편이다. 소수 혁신기업들의 실적이 화려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증시가 펄펄 끓어오르다 보니 세계경제가 마치 네나 할 것 없이 엄청난 호황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여기엔 분명 착시 현상이 끼여 있다.

사실 지금 멀리있는 경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지나친 비판도 해롭고 무작정 낙관도 위험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의 내면을 두루 살피면서 '균형과 유연함'을 유지하는 게 옳다. 거시 경제는 중립으로 두고 되도록 중목의 상승 여력을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경기의 그림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커트 보니것 명언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실감하기 전의 무지(無知)로 구성된 삶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다.”

블랙 유머의 대가로 평가받는 미국 소설가.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한 도시가 용광로가 되고 13만 시민들이 몰살당한 드레스덴 폭격을 겪은 그의 체험 장편 소설 '제5도살장'은 미국 문학사에 한 획을 긋는 반전(反戰) 문학의 토대가 된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922~2007.

☆ 고사성어 / 모야무지(暮夜無知)

‘어두운 밤이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다. 선물이나 뇌물을 몰래 주는 것을 이른다. 후한서(後漢書) 양진전(楊震傳)에 나온다. 형주 자사(刺史)에서 동래 태수(太守) 벼슬에 오른 양진(楊震)에게 형주에서 은혜를 입은 창읍 현령(縣令) 왕밀(王密)이 한밤에 황금을 예물로 갖다 주었다. 양진이

거절하자 왕밀이 한 말. “밤이 매우 깊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暮夜無知者].” 양진이 화내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와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라자 왕밀은 부끄러워하며 도로 가져갔다.

☆ 시사상식 / 엔시טיפ케이션(enshittification)

사용자에게 편익을 주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던 온라인 플랫폼이 점차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면서 플랫폼의 품질과 사용자 경험 이 저하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배설물’이란 뜻의 ‘shit’을 써서 플랫폼이 변질되는 것을 가리킨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 코리 닥터로가 만든 용어로,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 언어학회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단어’로 뽑히기도 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멧있는 숲 연구소장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⑧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

혁신금융·미술 결합해 新사업 창출
코인시장 대안각광...선점경쟁 치열

비트코인 1개가 1억 원을 호가하는 요즘 디지털자산 및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다시 또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이 증권사와 조각투자 업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사업은 NFT(Non-Fungible Token)는 물론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여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검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암호화폐 및 NFT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출현과 더불어 기존 금융자산들의 디지털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자산을 관리할 기술의 발달을 불러왔고, STO 사업을 탄생시킨 셈이다.

‘투자자 보호·투명성 확보’에 유리

세계 STO 시장은 연평균 22.45%씩 성장하여 2025년까지 약 4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STO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계류 중이라 많은 증권사 및 금융기업들이 물밑으로 준비는 하고 있으나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금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STO가 전 세계 자산투자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그중 첫 번째는 STO가 토큰 보유자의 경영권 행사 권한이나 이윤배당 등을 스마트 컨트랙트(계약조건을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프로그램)로 구현해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간편한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어느새 낯설지 않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 과정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진행되어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자금조달 과정이 간편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반인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게 돕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토큰발행이 주식이나 채권발행보다 수월해서 투자시장에 크게 어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증권 관련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증권 관련 법을 손쉽게 적용하여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STO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토큰 역시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존 증권 관련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데,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서 허용됐던 ICO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생했던 스캠 문제 예방까지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즉 기존 코인시장에서는 투자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에 비해 STO는 토큰 발행 단계부터 해당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다이트가 지난 1월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실시한 '현대 미술계의 대모' 쿠사마 야요이의 2002년작 호박(Pumpkin) 작품. 사진출처 케이옥션

국가의 증권거래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투자자들은 증권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 코인시장에서 드러났던 ICO와 달리 증권 관련 법과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거머쥐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TO 가이드를 마련하여 시장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현재 미국의 STO 취급 거래소는 15개에 달하며, '증권법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화폐시장의 장점

효과적 거래를 위해 탈중앙화거래 플랫폼(DEX)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STO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는 시간문제다.

국내에서는 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을 처음으로 시행한 쿠사마 야요이의 2002년작 '호박(Pumpkin, 22x27.3cm, 3호)'의 경우 1만 2320주 발행으로 총 12억 3200만 원 모집을 진행했는데 73%에 달하는 성공적인 달성률을 보였다. 최근에는 하나증권이 서울옥션블루와 미술품 조각투자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옥션블루는 앤디 워홀의 대표작인 '달러 사인'(Dollar sign, 51×40.5cm, 8호) 작품으로 투자계약증권을 출시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파나클, 오아시스비즈니스, 프린트베이커리, 아이티센, 다날엔터테인먼트 등 약 10여 개의 민간 조각투자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하거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각종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계류된 개정안 처리 시급해

금융당국이 STO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가 벌써 1년 전이다. 그러나 4·10총선 등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장활성화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다소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협력하여 STO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불확실한 투자 환경 속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대체투자처로서 시장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의 바람이 조만간 현실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백남준포럼 대표·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소장

예술품서 저작권까지 디지털자산화
자금조달과정 간편...中企에 유용해
법개정 지지부진, 총선뒤 통과 기대

을 결합해 대부분의 STO가 저렴하고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돈 몇만 달러에 불과한 단독주택의 지분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이 쉽고 빠르다. 프랑스의 경우 2021년에 화폐금융법을 단행하여 STO 사업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였고,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 4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1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였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관련 법규가 아직 온전치 못하다. 그 외에 태국이나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관련 규제가 아예 부재한 실정이다.

미·유럽 토큰증권 제도적 뒷받침

세계적 추세를 살펴볼 때, 희소성을 가진 아이템을 지분으로 쪼개 배당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NFT와 STO를 접목하는 IT업계의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술품은 물론 부동산과 저작권까지도 디지털화하여 메타버스 환경에서 디지털자산으로 유통시키는 게 변화 양상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총선이 끝났다. 수많은 공약이 여기저기 쏟아졌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를 경계하기 위해 공약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대중 연설의 내용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검증하는 폴리티팩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533개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이 중 48%만이 지켜지고, 27%는 수정되었으며, 24%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가 한 여러 약속을 모두 실행하기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실제로 100% 다 지키기를 모두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했던 공약을 되돌아보고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가를 비롯한 경제 문제의 해결이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시급하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올해 초 향후 10년 동안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꺾게 될 위험 요인 10개를 선정했다. 기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AI가 만들어내는 거짓 정보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5~6위를 차지했다. 그 외 전쟁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민이나,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이슈가 10위 안에 포함됐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예전대 최근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 최고 법원에 자국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미흡하여 생명권과 자율권이 침해되었다는 소송을 제기, 일

논현로

김영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부 승소한 일도 있었다. 기후와 관련하여 정당별 온도 차이는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꺾벌 개체 수 급감으로 대표되는 생태계 변화, 폭염에 따른 산불 증가 및 이에 따른 산림 자원 훼손, 지진 및 홍수 문제, 온난화로 인한 식량 위기 등 보다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려웠다.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대응에 자원 배분이 절실하다.

여야 모두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는 긍정적이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경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AI가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

이 적지 않지만, AI와 로봇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AI 및 로봇기술의 적극적 도입은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일과 일하는 방식에 맞는 역량 교육을 위해 대학 전공 및 정원의 변화 등 교육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국가가 보다 큰 틀에서 미래 사회를 조망하고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도, 로봇과 AI 도입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국회는 본연의 입법기능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적 통합 및 신뢰 회복을 이루는 데도 많은 관심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기후위기 현안 첩첩산중

공약점검·자원배분 선순위 정하고

사회통합·신뢰회복의 場 마련해야

프레임에 갇힌 ‘채 상병 사건’

아버지를 일찍 여읜 친구는 종종 화장터의 생소함을 회상했다. 근엄하고 슬픈 분위기보다는 주로 분골(粉骨) 직전 뼈에서 떨어져나온 쇳조각에 관한 얘기였다. 뼈 옆에 덩그러니 놓인 나사가 너무 어색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무릎뼈를 지탱하던 나사였으니 힘과 열에도 멀쩡한 게 당연했다. 그 친구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마지막에 마주한 쇳조각은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될 듯하다고 했다. 쇳조각으로 연결된 장면이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한 셈이다.

시선을 사회로 돌려도 여러 장면이 스친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도 그중 하나다.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렸던 사고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번지는 순간 기이한 장면이 반복됐다.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돌연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떠났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였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해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의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의 이유로 11일 만에 급거 귀국하고, ‘도피대사’ 논란 속에 25일 만에 직을 사퇴했다. 모두 전례 없던 일이다. 이전 장관은 속 시원한 해명 대신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노트북 너머

김이현

사회경제부 기자



말만 남겼다.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한 해병대원은 생존 직후 어머니와 첫 통화에서 “내가 채 상병을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한다. 지금은 제대 후 사회로 복귀한 이 청년에게 당시 기억은 지워지지 않으리라고 감히 짐작할 뿐이다. 저마다 기억하는 장면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영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여 의혹까지 엮여있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래의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의혹을 걷어내고 나면 쇳조각처럼 진실이 완전히 남아 있길 기대해본다. spes@

사설

美 63조, 日 35조, 韓 0원... ‘전의 전쟁’ 게임 되겠나

반도체 패권을 향한 ‘전의 전쟁’이 불을 뿜는다. 어제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은 3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3조9000억 엔(약 34조7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미국과 독일은 5년간 각각 7조1000억 엔(63조3000억 원), 2조5000억 엔(22조3000억 원)을 썼다. 일본은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 투자를 진행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71%를 집행했다. 미국(0.21%), 독일(0.41%)을 훨씬 웃돈다.

세계 주요국이 앞뒤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 재정을 푸는 이유는 국력, 국운, 그리고 국가 미래가 걸렸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경제,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 자원이란 측면도 있다. 미국은 국내의 기업들을 끌어들이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중추기지를 해외에 둘 순 없다는 것이다. 2022년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5년간 총 527억 달러(70조5000억 원)를 지원한다. 재정 지출인 보조금으로만 390억 달러(52조2000억 원)를 쓴다. 대만 TSMC에 116억 달러(보조금 66억 달러, 저리 대출 50억 달러)를 지원한다. 앞서 인텔에는 총 195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

일본도 작심하고 밀어준다. TSMC 제1공장 4760억 엔에 이어 제2공장에도 7320억 엔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50년간 묶여 있던 그린벨트가 풀렸다.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는 5900억 엔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 3300억 엔에 더해 모두 9200억 엔을 최첨단 2나노(nm·10억분의 1m)

제품 개발과 양산에 투입하는 것이다.

방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보조금 제도 공통기준을 포함한 광범위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강대국의 반도체 공조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과 힘을 합쳐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지구촌의 반도체 판도가 이렇듯 요동치는데 ‘반도체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대체 어디에 있는 지 알 길이 없다. 경쟁국들은 날고 한국은 기는 형국이다. 한국은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세계 메모리 1등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반도체 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지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돌파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섰다는 뜻이다. 일단 고무적이다. 하지만 행정부 의지만으로 반도체를 살리는 충분조건이 마련될 수 없다.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이다. 입법부가 힘을 보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총선으로 차기 입법 지형이 확정됐다. 새 권력자들은 ‘대기업 특혜 반대’ 같은 시대착오적 깃발을 내리고 유권자를 위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반도체 한국’은 아직 보조금 경주의 출발점에 서지 못했다. 한시가 급하다.

특허, 특!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한국의 경기침체가 심상찮다. 코로나 및 저금리에 따른 부채 증가의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가 종결된 현재에도 여전하다. 반면 AI 산업의 발달과 반도체 내재화에 따라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 부채 및 고물가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만을 고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높아진 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리더라도 매우 완만하게 오랜 기간동안 천천히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는 추세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 소외돼

열린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6월 정부는 R&D 예산을 4조 원 이상 삭감했다. R&D 예산의 삭감은 정부 출연연구소 등 특허출원 예산의 감소로 이어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고객이 주가 아닌 일부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의 매출도 감소되는 추세다. 물론, 예산 삭감과 별개로 경기 침체에 따라 스타트업 및 중견 기업들의 특허출원 추세도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생존하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특허시장은 우는 아이 뺨 때린 격이다. 특허출원 건수만 증가해왔던 양적 성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에 저성장의 한계라는 벽을 마주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4년여 만에 법사위에 재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가 폐기 직전의 상태이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

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하면서 싸우고 있다. 한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얻을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무효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설사 무효가 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특허시장은 분쟁보다는 정부 R&D 예산의 도움을 받는 출원시장에 한정되는 모양새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리인 수가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도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동일 예산에 많은 산출물을 원하는 정부 및 기업 관계자에게 있어 이는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이슈다.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 공동대리 인정 절실

자국 우선주의로 흘러가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 특허시장을 이렇게 방치하는 건 중요한 레버리지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속지주의에 의하는 특허의 특성상 시장이 큰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강력한 특허를 갖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무효율을 낮추고 침해배상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공동대리도 인정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수가와 정부 R&D 예산의 수가부터라도 우선 상향되어야 한다. 자원이 없다고 한국 특허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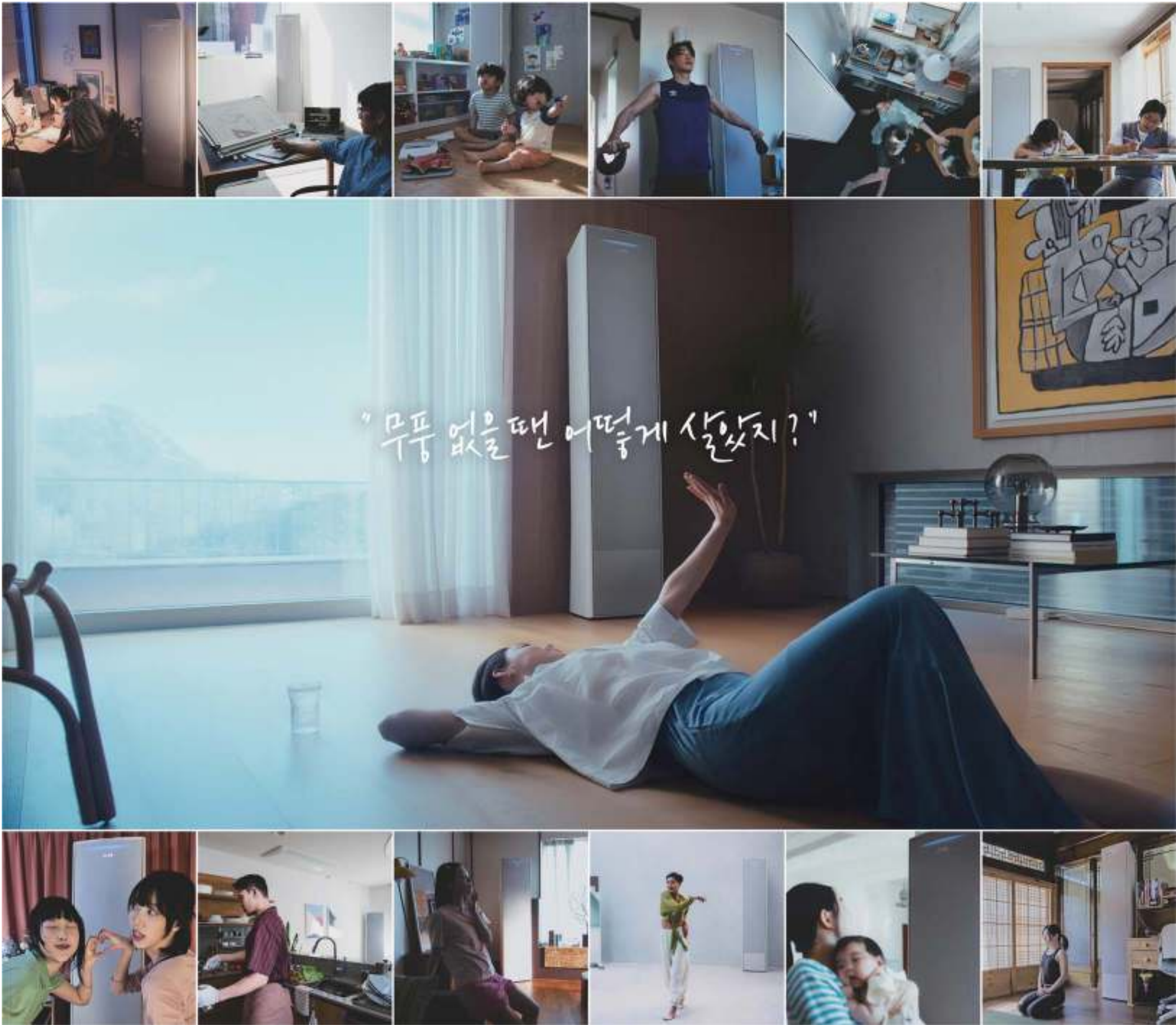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천만 대의 무풍이 만들어 온 건

직바람에 찌푸릴 일 없는 여름 [무풍 모드]

AI로 전기요금 걱정 덜어주는 여름 [AI 절약 모드]

방방곡곡 빠르게 시원해지는 여름 [하이패스 서큐 냉방]

천만의 선택
BESPOKE AI 무풍에어컨



 무풍에어컨 천만대 돌파 기념 페스티벌
뉴질랜드 투어, 신라호텔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 총 1,000분께 경품을 드립니다
(24년 4월1일~6월30일 24년 무풍에어컨 갤러리 신규 구매 고객 대상,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참고)

*미국 냉공조학회(ASHRAE)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 *AI 절약 모드는 SmartThings에서만 지원하며,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AI 절약 모드로 누진 단계에 따른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환경에 따라 스마트미터기 별도 구매가 필요 * AI 절약 모드 사용 시 설정 온도가 최대 2도 상승할 수 있음 * 무풍에어컨 천만대 판매 관련, 2016년 1월~2024년 3월 일체의 온,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무풍에어컨(가정용, 상업용) 스탠드형, 벽걸이형, 창문형, 시스템 에어컨 누적판매량 기준

세상에 없던
AI 라이프.